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안내서

스포츠가
버려야
할 것들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향하여

SPORTS FOR ALL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안내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향하여

스포츠가 버려야 할 것들

스포츠 선수들의 힘겨운 고발과 외침을 접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고 학생 선수들, 대학·실업 운동부 소속 선수들,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들려주는 무거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과도한 훈련에 놓여 있었으며, 폭력과 성폭력, 자기결정권과 생활 제약과 같은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그런 현실을 드러낼 수 없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경험을 하고자 운동을 하는 이는 없습니다. 이제 어떤 선수도 고통을 느끼면서, 또 자아가 무너지면서 운동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스포츠 분야의 '인권 제자리 찾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선수들은 인권을 보호받으며 운동할 권리가 있고, 지도자와 운동부 운영조직, 행정 당국은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안내서」는 선수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설문과 대면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현장에서 겪는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가 무엇을 버려야할지’ 그리고 ‘스포츠가 무엇을 지켜야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아가 스포츠가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2019년 심각한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널리 알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입니다. 특별조사단은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과 문화 조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체육계 현장 관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인권 향상에 필요한 조사, 교육, 캠페인, 권고 등의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개요

국가대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운동선수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학생 운동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조사이며, 조사와 함께 인권교육이 병행되었다. 조사결과는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활용되었다.

초·중·고교 학생선수 조사 2019년 7월에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국 63,000여 명의 초·중·고교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응답자는 초등 18,007명, 중등 21,952명, 고등 17,598명이다.

대학생 선수 조사 2019년 7-8월에 전국 107개 대학 7,000여 명의 대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응답자는 4,924명이다.

실업 선수 조사 2019년 7월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직장운동부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응답자는 1,251명이다.

장애인 선수 조사 2019년 10월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응답자는 1,576명이다.

일러두기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초, 중, 고, 대, 실업팀, 장애인이라는 6개 집단을 대상으로 구분해 조사되었으며,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설문내용에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6개 집단 간 직접비교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따라서 본 책자에서 보여드리는 인포그래픽에서는 최소 1개 집단에서 최대 6개 집단의 응답 비교가 혼합되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들어가며_3

1. 언어폭력 _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깊을 수 있어요_8
2. 신체폭력 _폭력이 훈련이 될 수는 없어요_20
3. 성폭력 _장난도 친밀감의 표현도 아닌 폭력입니다_46
4. 학습권 침해 _학생선수도 학생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할 권리가 있어요_72
5. 사생활 침해와 불공정 _공정하지 않으면 스포츠가 아닙니다_88
6. 스포츠 인권 _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향하여_114

나가며_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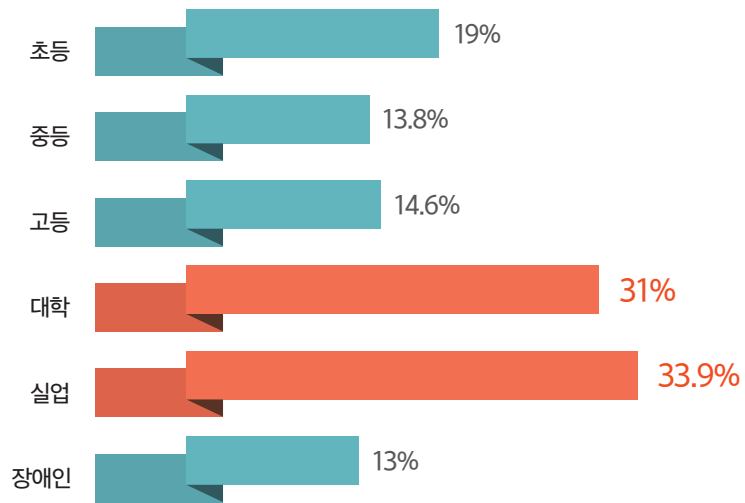
1

언어폭력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깊을 수 있어요

욕설, 모욕, 조롱, 욕박지르기 등의 언어폭력은 그냥 조금 심한 말, 거친 말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어폭력은 신체폭력만큼이나, 때로는 신체폭력보다 더 큰 고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스포츠를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후배, 동료, 제자를 향한 거친 말속에서 스포츠의 품격도 함께 추락합니다. 스포츠 정신과 인권에 입각하여 스포츠 공동체 구성원을 존중하고, 모든 형태의 스포츠 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은 언어폭력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언어폭력의 피해 경험은?



운동선수 13~34%가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대학생과 실업팀 선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수 interview

“남자 감독이 경기 내내 여고생 선수들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xx xx야, xx xx야, 죽을래, 그 따위로 할 거야? 미쳤어? 나가! 너 뭐 하는 거야? 장난해?” 이런 식으로 폭언을 했어요. 그 폭언을 들은 관중들이 “저게 감독이냐, 욕하지 마라, 도대체 뭘 배우겠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 전국체전 선수, 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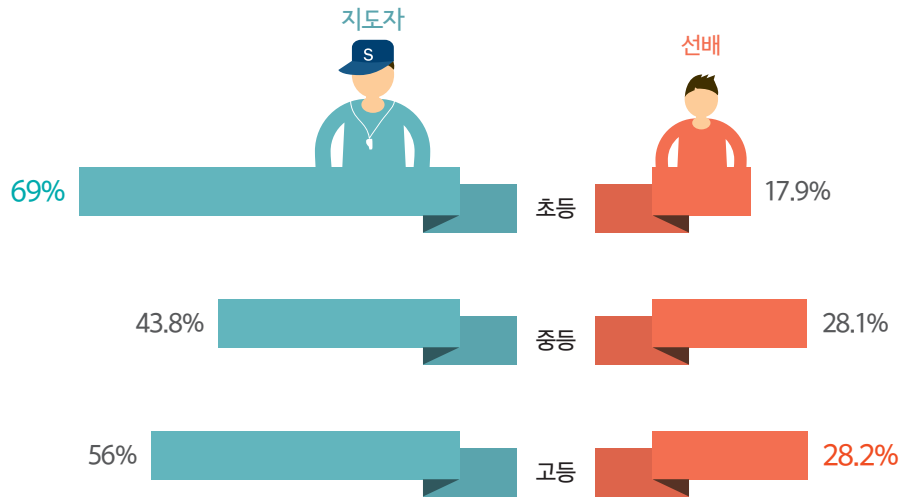
“우리 앞에서 감독님이 계속 담배 피우면서 욕과 비속어로 말했어요”

— 중학생 선수, 남자, 야구

“동료 선수들로부터 나의 체형에 대한 놀림이 많아서 운동을 그만 두고 싶었지만, 그만 두게 될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었죠.”

— 장애인 선수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지도자(코치, 감독)가 가장 많았고
초등 선수에 비해 중·고교로 갈수록 선배 가해자의 비중도 커졌다



선수 interview

“지도자에게 욕은 항상 먹는 거라 특별히 기억은 안 남지만... 시합 때 실수를 했는데 부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감독님이 저를 때리며 소리를 쳤을 때 많이 창피했어요.”

— 대학생 선수

“어디 애들은 인성이 좋은데 어디 나온 애들은 정신이 쓰레기네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세요. 서로 대화가 되고, 선수를 존중을 해줘야 선수도 그만큼 따라주게 되는데요. 선수를 그냥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데려왔는데 실적을 못 내면 자르면서 그만이지. 이런 식이에요. 지도자들도 선수들한테는 존칭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말로 선수한테 엄중 수치를 줘요. 야, 너 일루와. 이 x x, 이 x a, 글러빠진 x x야,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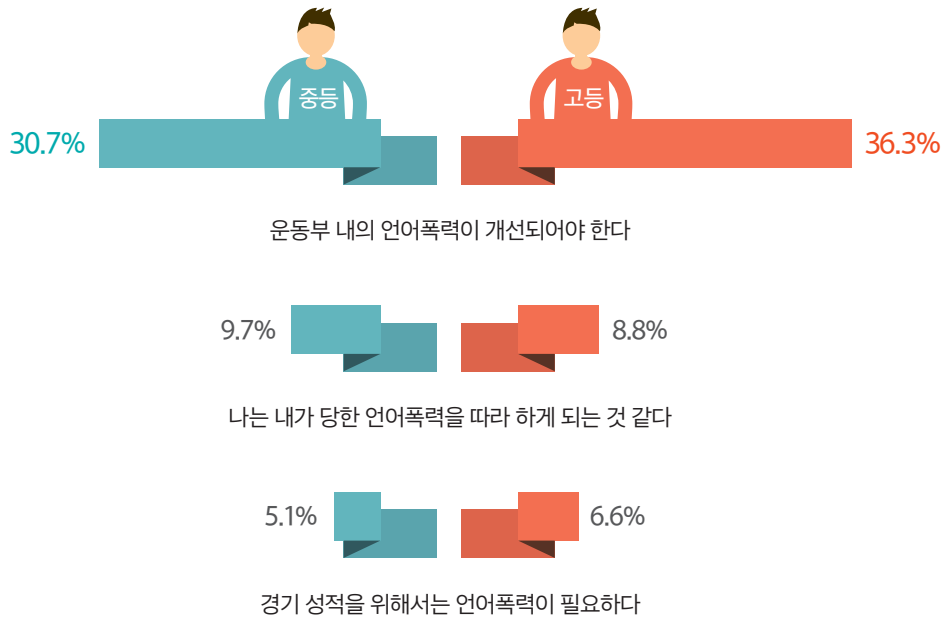
— 실업팀 선수

“어릴 적 장애로 인해 다른 선수들보다 이해도가 떨어져 훈련을 따라가는 속도가 느터보니 감독으로부터 험한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 장애인 선수

사례수 초등 3,423명 / 중등 3,039명 / 고등 2,573명

언어폭력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은?



언어폭력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언어폭력을 모방하거나 성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내재화의 경향도 나타났다

사례수 중등 21,952명 / 고등 17,598명



선수 interview

- “단장님과 감독님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해요. 욕을 먹지 않으면서 운동하고 싶어요.”
_ 초등학교 선수, 남자, 아이스하키
- “코치들의 언어폭력... 조선 놈들은 맞아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는 거지 욕을 듣고 인격을 모독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_ 고등학교 선수, 남자, 축구
- “이야기를 하다가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제 인생동안 받지 못했던 모욕감을 느꼈어요. 욕은 아니지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_ 실업팀 선수

언어폭력, 이렇게 예방하고 대응해요

선수

- ◆ 욕설이나 모멸감을 주는 말, 큰소리로 욕박지르는 것은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경기 중이나 연습할 때, 또 일상에서도 자신에게 언어폭력이 가해진다면 참지 말고 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 ◆ 자신도 타인에게 언어폭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친 언어는 타인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자신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 ◆ 언어폭력을 들었을 때, 학교나 외부 기관에 알리고 상담을 받으세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더 이상 언어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모

- ◆ 훈련 성적이나 경기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자녀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며 긍정적인 대화로 소통해야 합니다.
- ◆ 욕설과 비난과 같은 언어폭력은 전문가의 지도방법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가 지도자에게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했을 때, 지도자의 편에서 자녀를 탓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자녀가 언어폭력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학교나 외부 기관에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폭력 피해를 처리하여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 ◆ 부모에게는 자녀의 안전한 훈련 환경과 관련하여 학교나 소속팀, 지도자와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도자

- ◆ 지도자는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설적인 지도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욕설과 비난과 같은 언어폭력은 전문가의 지도방법이 아니며, 선수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 ◆ 선수 개개인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신중히 판단하지 않고 선수를 함부로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 개인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을 할 때는 다른 선수들이 듣지 않도록 따로 불러서 논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 ◆ 개인의 잘못을 전체 집단에 적용하여 비난하지 않습니다.
- ◆ 선수들 간에도 욕설이나 거친 언어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상대방 선수나 심판, 언론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 ◆ 언어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해진 절차와 체계에 따라 폭력 피해를 처리합니다.

우리 운동부가 언어폭력에 대비하고 있는지 체크해봅시다

정책

- ◆ 언어폭력 예방과 근절을 포함하는 스포츠 폭력 방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 ◆ 언어폭력 예방과 대처 관련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 폭력 예방 매뉴얼이 있다.

예방

- ◆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
- ◆ 스포츠 지도자 채용 시 언어폭력에 대한 주의 의무를 알린다.

교육

- ◆ 지도자, 선수, 학부모, 자원봉사자, 행정담당자, 의료진 등 스포츠 공동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대처

- ◆ 언어폭력으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피해 발생 시 지원을 담당할 상담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위탁하여 상담 받을 전문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 ◆ 언어폭력 피해자나 보호자가 참고할 심리적 상담, 조사, 구제 매뉴얼이 있다.
- ◆ 언어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 ◆ 언어폭력 조사 및 가해자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 ◆ 언어폭력을 포함한 스포츠 폭력 예방 정책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평가할 기준을 갖추고 있다.
- ◆ 언어폭력을 포함한 스포츠 폭력 예방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고 있다.

행정당국도 다음과 같은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언어폭력 근절과 대처를 위한 정책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언어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 내에서 언어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한 경우 그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한다.
- ◆ 개별 운동부나 행정당국에 언어폭력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처리가 지연 또는 무마되거나, 관대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감독한다.
- ◆ 언어폭력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지도자나 선수가 현장에 쉽게 복귀하지 않도록 하며, 징계 대상자들이 지역이나 직장을 옮겨 체육현장에 복귀하지 않도록 관련자 정보를 관리하고 타 기관과 공유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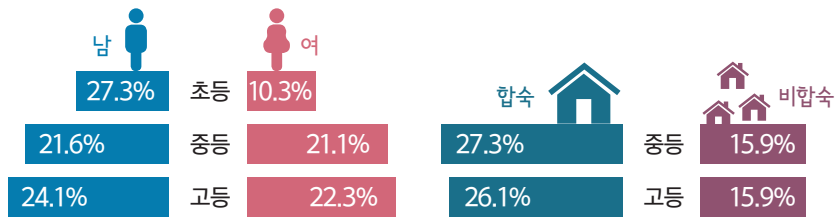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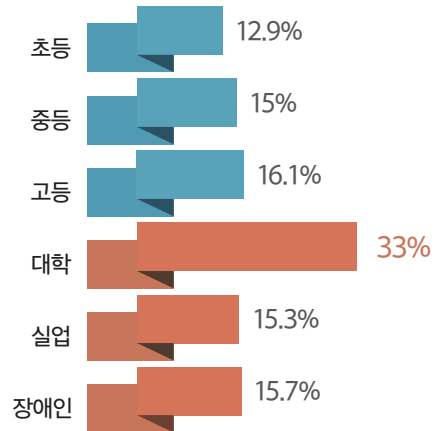
신체폭력



폭력이 훈련이 될 수는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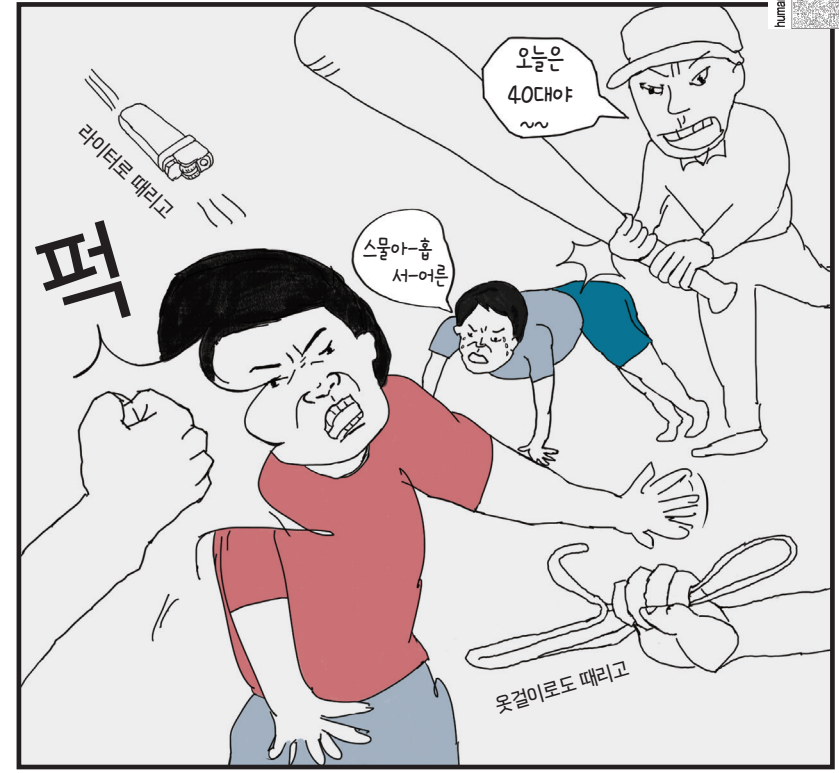
훈련과정에서 자행되는 체벌이나 기함은 선수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폭력입니다. 정신력 강화나 태도 교정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이 용인되면, 선수들은 운동을 하는 이상 폭력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독과 선배로부터 시작된 폭력이 동료와 후배들에게로 대물림되고, 선수들은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폭력은 훈련이 아닙니다. 폭력을 도구로 활용하는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인 훈련 방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신체폭력의 피해 경험은?



대학생 선수 3명 중 1명은 신체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초등부터 실업선수까지 모두 10명 중 1명 이상 피해 경험이 있었다
남녀별 피해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합숙 시 폭력 피해가 더 많아 단체생활이 폭력 빈도를 높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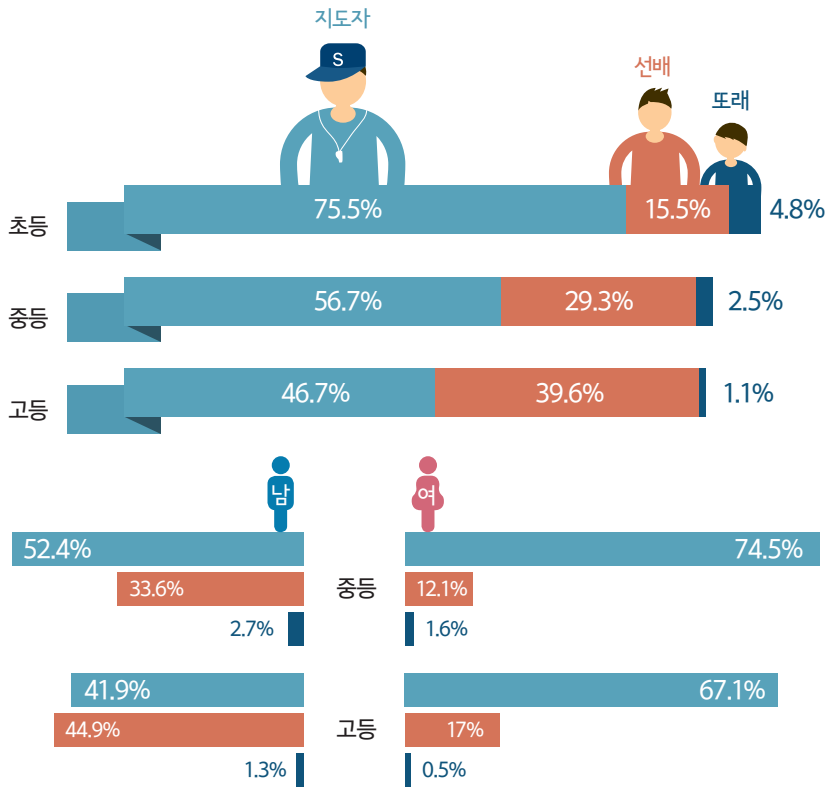
■ 사례수 초등 18,007명(남13,039_여4,968) / 중등 21,952명(남17,162_여4,790) / 고등 17,598명(남13,842_여3,756)
대학 4,924명 / 실업 1,251명 / 장애인 1,554명



선수 interview

- “하루에 30대 정도 맞았어요. 많이 맞으면 40대.. 안맞는 날은 없고 매일 매일 맞았어요.. 창고 들어가서 손이든 등이든 얼굴이든 그냥 막...”
_ 초등학교 선수, 남자, 배구
- “발바닥 맞을 때는 피가 멈추는 느낌이 들고 손바닥을 맞을 때는 멍이 든 적도 있어요. 안 맞고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_ 초등학교 선수, 여자, 수영
- “선수의 몸과 미래보다 순간의 성적을 위해 혹사를 시키고, 폭행을 하고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팀이었습니다.”
_ 고등학교 선수, 남자, 카누
- “선배에게 라이터, 옷걸이, 전기 파리채로 맞았어요.”
_ 대학생 선수

신체폭력의 가해자는?



지도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선배선수였다
 중·고로 갈수록 선배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여자선수의 경우 지도자 비중이 높은 반면,
 남자선수는 지도자 못지않게 선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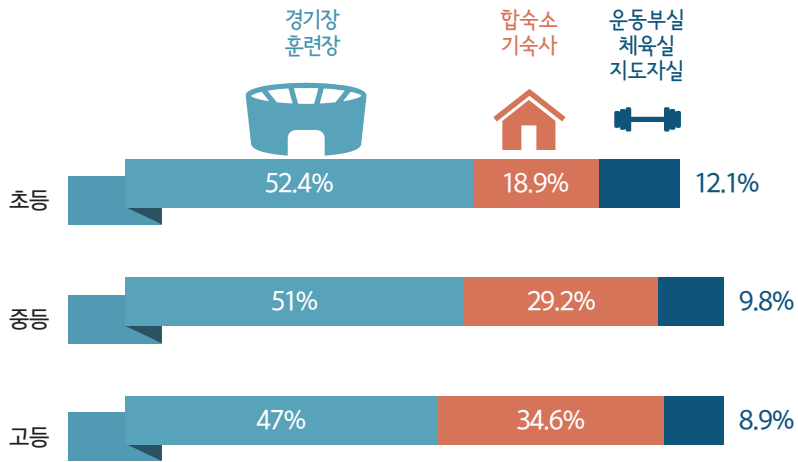
사례수 초등 2,320명 / 중등 3,311명(남2,620_여691) / 고등 2,844명(남2,277_여567)



선수 interview

- “코치님이 엉덩이를 때려서 전체 피멍이 든 적이 있어요. 그 때는 잠도 못자고 앉지도 못했어요.”
_ 초등학교 선수, 남자, 배드민턴
- “코치님께서 나무 베트로 허벅지 안쪽을 때렸고 멍이 많이 든 것을 보고 부모님이 우셨습니다.”
_ 초등학교 선수, 남자, 야구
- “양궁이라는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 육체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운동인데... 선배가 오늘 활을 잘 못 쓰거나 기록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저희한테 킥니다.”
_ 중학생 선수, 남자, 양궁
- “코치님이 주장에게 때리라고 허락해서 주장이 몇 대 지정해서 때리는 식..”
_ 고등학교 선수, 남자, 축구

신체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경기장, 훈련장이 가장 많았고,
합숙소, 기숙사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운동공간과 생활공간 모두에서 신체폭력이 일어나고 있었다



선수 interview

“선배들이 주로 숙소에서 충전기 선 같은 걸로 감아서 팔이나 가슴을 때리고...때린 흔적이 티가 나면 긴 팔 입이라고 하고...”

— 중학생 선수, 남자, 양궁

“합숙소 선배가 밤새도록 복도에 세워둔 적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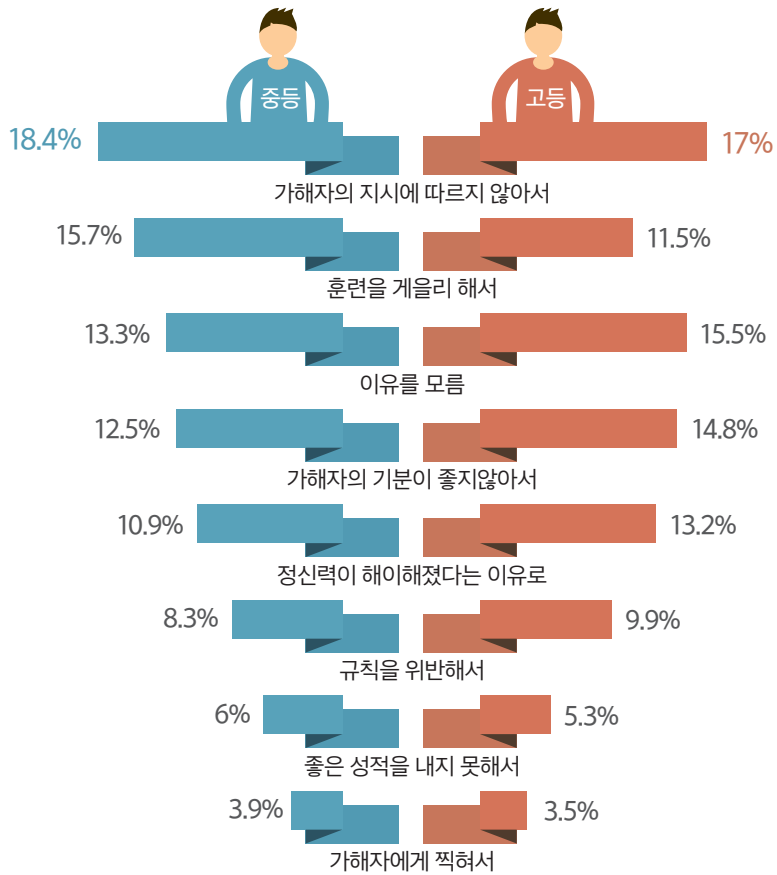
— 대학생 선수

“저희 기숙사가 4인실인데 4학년이 한 명씩은 꼭 끼어있어요. 운동 힘들게 마치고 기숙사 들어왔는데 선배 눈치 봐야 되고, 가끔씩 폭력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 대학생 선수

사례수 초등 2,320명 / 중등 3,311명 / 고등 2,844명

신체폭력이 발생한 이유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거나 훈련 태만을 이유로 한 폭력이 가장 많았고, 이유 없이 또는 가해자의 기분에 따른 무분별한 폭력도 상당했다

사례수 중등 3,311명 / 고등 2,844명



선수 interview

“코치님에게 맞는 이유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맞는 건 상관없어요.”

_ 초등학교 선수, 여자, 태권도

“엄마는 제가 수영하는 걸 보러 오시기 때문에 제가 맞는 것도 보시거든요. 엄마는 운동할 때 똑바로 잘 하지 왜 맞았냐고, 다음부터는 잘 좀 하라고...”

_ 초등학교 선수, 남자, 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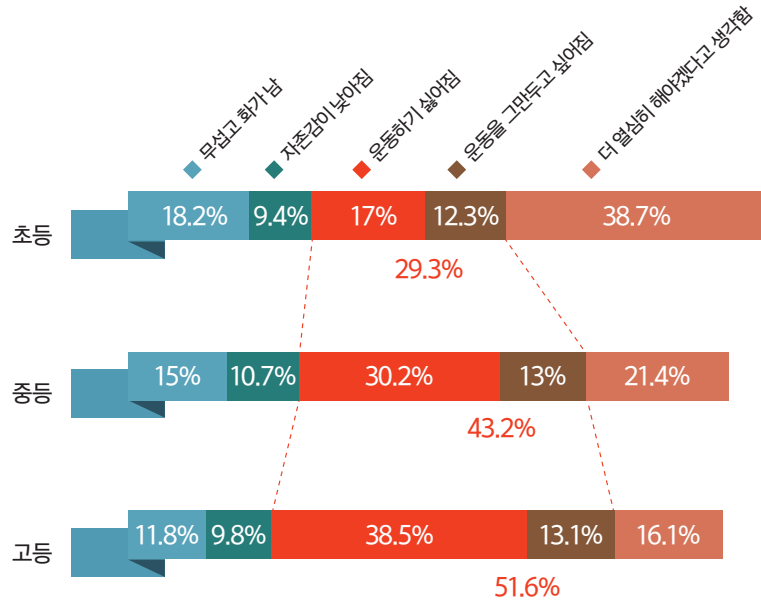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좀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성적 내기가 힘들죠.”

_ 고등학교 선수, 남자, 양궁

“대학교 때가 되니 선배가 마구 때리지는 못하고 대신에 보복 운동을 시켜요”

_ 대학생 선수

신체폭력을 당했을 때 느낀 감정은?



중·고교로 갈수록

‘운동하기 싫다’,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회의적 감정이 커졌고, 초등선수들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폭력의 내면화 경향을 보였다



선수 interview

“때리지 않으면 좋겠고, 운동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그만둘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 초등학교 선수, 여자, 태권도

“우리가 못해서 선생님이 때리실 때가 무서웠어요.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아침이 오면 무섭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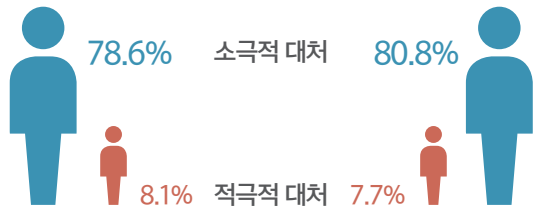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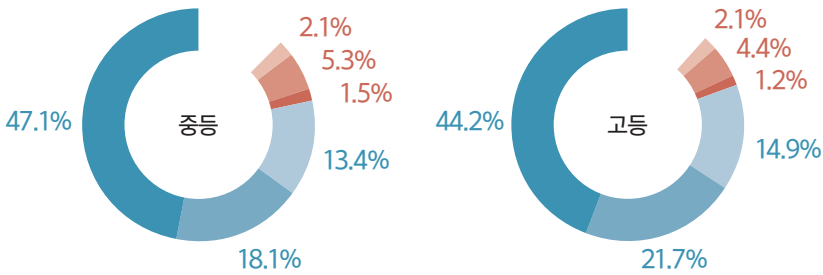
— 초등학교 선수, 여자, 배구

“선배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맞게 되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처 맞아가지 정신을 차립니다.”

— 중학교 선수, 남자, 양궁

신체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나?

- | | |
|------------------------|-----------------------|
| 소극적 대처 | 적극적 대처 |
|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함 |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남 |
|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어감 |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 요구 |
|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 |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 |



대부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대처에 그쳤다
분명하게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사례수 중등 3,311명 / 고등 2,844명



선수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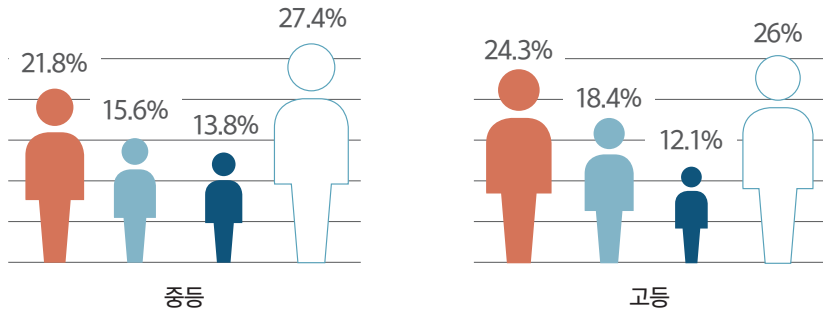
"폭력에 대한 대처요? 실천해본 적 없어요. 일이 커질까봐... 괜히 또 그랬다가 우리 운동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말해봤자..."

— 중학생 선수, 남자, 양궁

"부모님은 그냥 참아라 하세요. 3학년 형들 깁 해봤자 1년 남았고.. 너도 다음에 후배들한테 그럴 수 있고.. 멍들고 뼈 부러지고 그런 거 아니면 좀 참아라 했어요."

— 고등학생 선수, 남자, 축구

신체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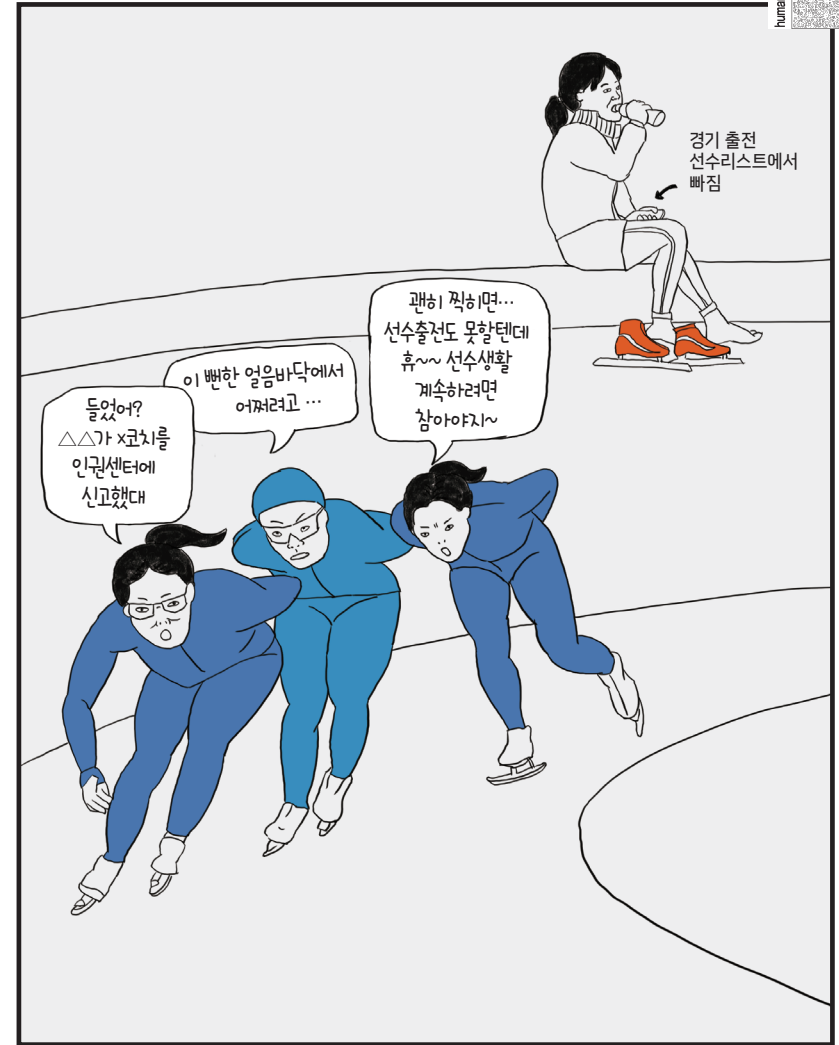


- 보복이나 불이익이 무섭고, 걱정되어서
- 팀 분위기나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 기타



보복 또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나 팀 분위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례수 중등 3,311명 / 고등 2,84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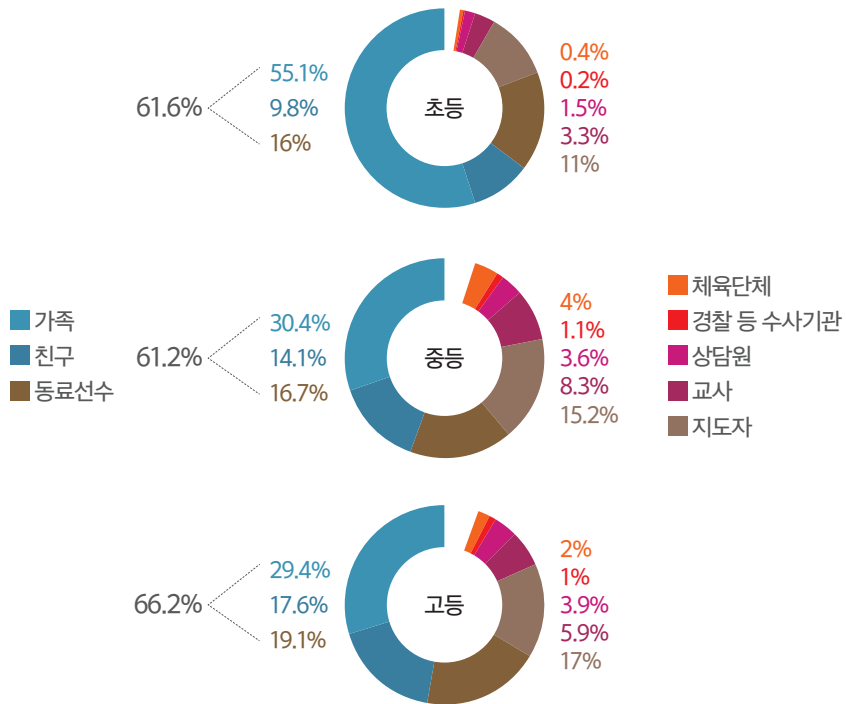


선수 interview

“일이 생겨도 뭐 신고하라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도 나서서 신고는 못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코치뿐만 아니라 이 얼음바닥.. 이 바닥에서 재가 저 코치를 신고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돌고.. 이슈가 많은 선수보다는 없는 선수를 뽑지 않겠냐는 게 저의 생각이예요.”

고등학교 선수, 남자, 빙상

신체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지도자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선수로 나타났으며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사례수 초등 371명 / 중등 155명 / 고등 123명



선수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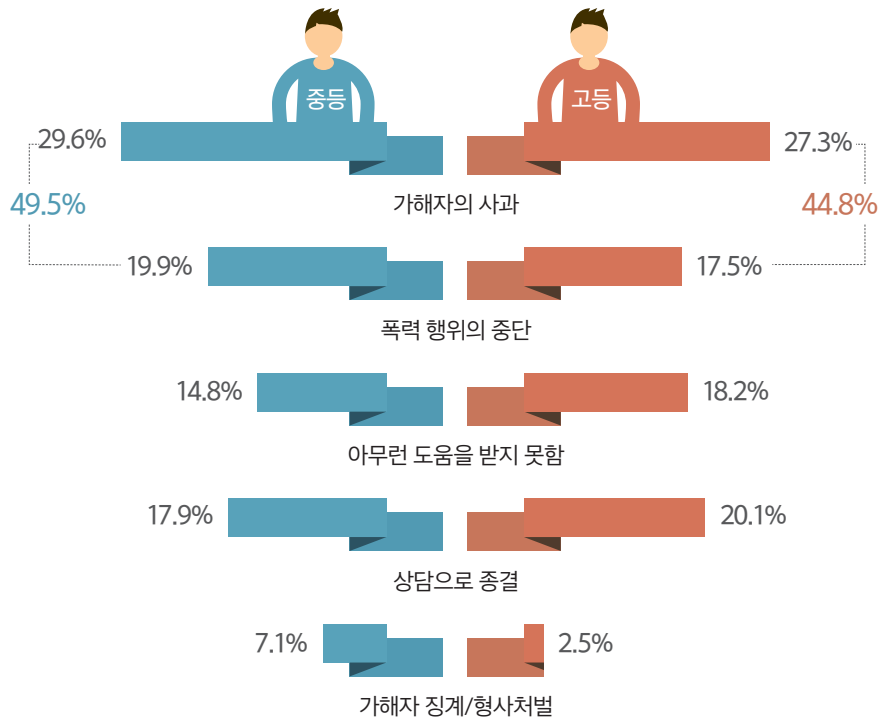
“뭐 어차피 상담센터 가서 운동부인데 맞았다 이런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운동부 코치 쌤한테 할 거니까 쌤이 알게 될거고... 그래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중학생 선수, 여자, 펜싱

“힘든 것 털어놓기는 진짜 친한 친구들 아니면 힘들죠.”

— 중학생 선수, 남자, 양궁

신체폭력 시 도움을 요청한 결과는?



2명 중 1명은 사과를 받거나 폭력행위가 멈췄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도 14.8~18.2%에 달했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믿고 상담·신고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절실하다

사례수 중등 155명 / 고등 1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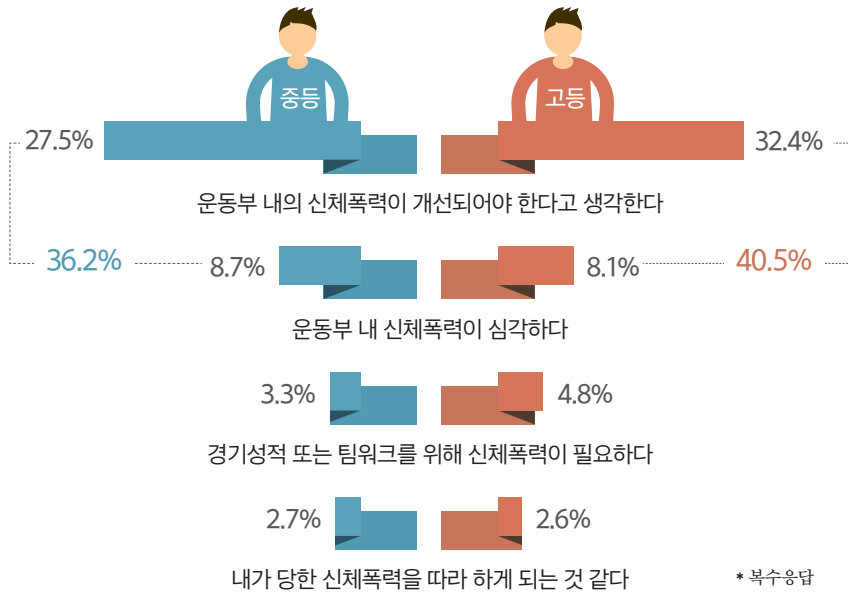


선수 interview

“최근 코치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구타가 있었어요. 신고하려고 했지만 코치가 미안하다고 했고 최고선수로 만들어주겠다고 안심시켰어요. 그 이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장예인 선수

신체폭력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은?



10명 중 4명 정도는 운동부 내 신체폭력이 심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부는 경기성적이나 팀워크를 위해 신체폭력이 필요하다거나 폭력을 따라하게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례수 중등 21,952명 / 고등 17,598명



선수 interview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니니까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운동하면서 맞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 초등학교 선수, 남자, 배구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으니까... 스스로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옆에서 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 중학생 선수, 여자, 펜싱

“운동 할 때는 그래도 무섭게 해야 애들이 딱 군기가 잡혀가지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은데 너무 부드럽게 대해 주시면 좀 운동이...”

— 중학생 선수, 남자, 수영

신체폭력, 이렇게 예방하고 대응해요!

선수

- ◆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지 지도자나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운동을 하는 보람의 한 부분입니다.
- ◆ 경기 중이나 연습할 때, 또 일상에서 신체를 구타당하거나 체벌, 기합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합과 체벌, 구타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 ◆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때, 학교 상담실이나 외부 기관에 알리고 상담을 받으세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더 이상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 나 자신도 동료 선수나 후배 선수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

- ◆ 자녀가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 ◆ 부모에게는 학교나 소속팀, 지도자에게 자녀가 폭력 없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지도자의 지도방법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라고 판단할 때는 주저 없이 해당 지도자나 기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폭력 피해가 처리되도록 감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지도자

- ◆ 어떠한 이유로도 운동부 내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능력이나 팀워크는 강압이나 체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도와 긍정적인 동기부여, 열린 소통문화를 통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 ◆ 지도자는 구타나 체벌과 같은 직접적 폭력 뿐 아니라 기합이나 벌칙으로 가하는 신체적 고통과 같은 간접적인 폭력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 ◆ 운동선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과도한 운동 훈련이나 휴식을 제한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 지도자는 선수들 간의 폭력도 예방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 ◆ 암묵적으로 선배가 후배를 훈육하거나 체벌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상급자나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정해진 절차와 체계에 따라 폭력 피해를 처리합니다.

우리 운동부가 신체폭력에 대비하고 있는지 체크해봅시다

정책

- ◆ 신체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 신체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이 있다.
- ◆ 신체폭력 예방과 대처 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예방

- ◆ 신체폭력 예방을 위한 대상별 행동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
- ◆ 스포츠 지도자 채용 시 스포츠 폭력 이력 등을 확인하고, 예방에 대한 의무를 주지시킨다.

교육

- ◆ 지도자, 선수, 학부모, 자원봉사자, 행정담당자, 의료진 등 스포츠 공동체 관계자 대상의 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대처

- ◆ 신체폭력 피해 발생 시 상담과 지원을 담당할 전문 상담원이 있다.
- ◆ 신체폭력 피해자나 보호자가 참고할 상담, 조사, 구제 매뉴얼이 있다.
- ◆ 신체폭력 피해 사건을 공정하게 다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 ◆ 신체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 ◆ 신체폭력 조사 및 가해자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
- ◆ 신체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리 없이 현장에 복귀시키지 않는다.

모니터링 및 평가

- ◆ 스포츠 폭력 예방 정책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평가할 기준을 갖추고 있다.
- ◆ 스포츠 폭력 예방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고 있다.

행정당국도 다음과 같은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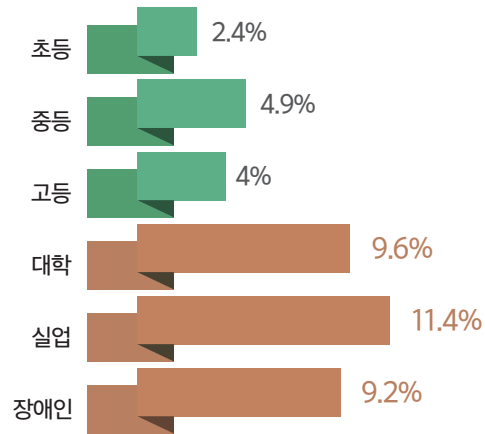
-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신체폭력 근절과 대처를 위한 정책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신체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 내에서 신체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한 경우 그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한다.
- ◆ 개별 운동부나 행정당국에 신체폭력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처리가 지연 또는 무마되거나, 관대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감독한다.
- ◆ 신체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일된 징계절차와 엄격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감시한다.
- ◆ 신체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현장에 있지 않도록 지도한다.
- ◆ 신체폭력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지도자나 선수가 현장에 쉽게 복귀하지 않도록 하며, 징계 대상자들이 지역이나 직장을 옮겨 체육현장에 복귀하지 않도록 관련자 정보를 관리하고 타 기관과 공유한다.

성폭력

장난도 친밀감의 표현도 아닌 폭력입니다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즉 자신의 몸이나 성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스포츠 공동체처럼 유대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벗어나기 힘들고 외부에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성을 수단으로 운동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저열한 문화와 범죄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인되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과 스포츠 이해관계자들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지자와 감시자가 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야 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2.4~11.4%의 선수들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
성인의 경우 10명 중 1명 정도로 피해 빈도가 높았고
미성년자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 interview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말없이 제 몸을 터치하는 것이 괜찮나요?”

— 초등학교 선수, 여자, 빙상

“운동부면 코치님들이 장난식으로 성희롱 많이 하잖아요.. 감독님이 도복 매고 준비상태로 가는 데 애들 ×× 만지고.. 제 견 딱밤으로 때리고..”

— 중학생 선수, 남자,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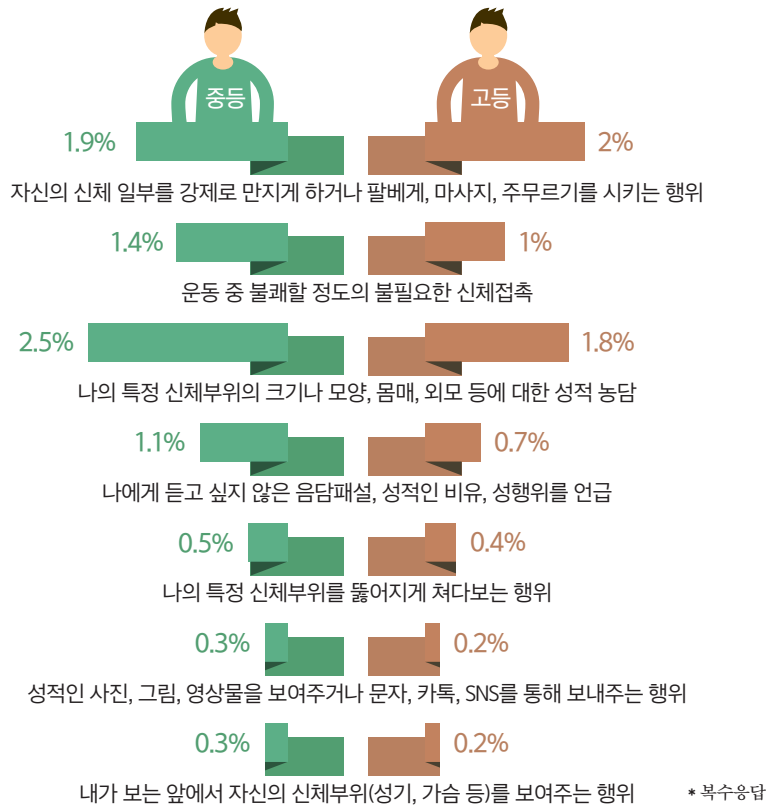
“체조복이 몸에 붙으니까.. 제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된 기분이예요. 찍는 분들도 계시고..”

— 중학생 선수, 여자, 체조

“다른 학교 또래 남자애들하고요.. 굳히기 할 때 엎드려서 조르기, 꺾기 이렇게 하는데 개네가 저희가 쓰그러있으면 안쪽으로 깃을 넣거든요. 거기서 고의적으로 건들고..”

— 고등학교 선수, 여자, 유도

성폭력의 피해 양상은?



중·고생 선수들이 주로 경험하고 있는 성폭력은
강제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외모에 대한 성적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수 중등 1,071명 / 고등 703명



선수 interview

“수영복을 입고 있으니깐 ‘가슴 봐’, ‘허벅지 봐’ 이렇게 있는거 같아요..”

— 중학생 선수, 여자, 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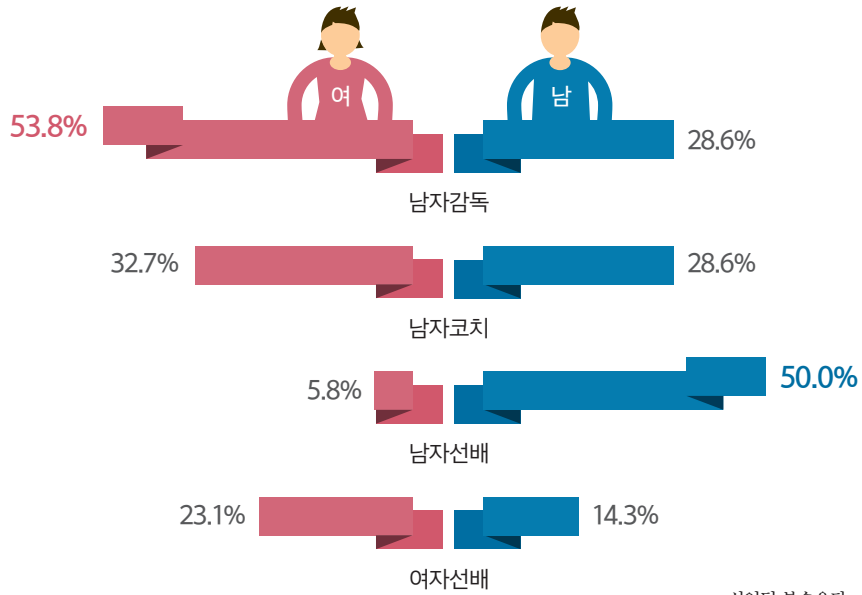
“요즘 저희 나이때면 다 한 번씩 성관계 하잖아요. 어떤 선배는 한 번씩 와서 자랑스럽게 ‘나 누구랑 했어’ 하는데 낯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 고등학생 선수, 여자, 유도

“코치님이 빨리 오라고 손목을 잡고 가거나, 생리 주기 물어보면서 생리할 때 기분이 어떨냐, 생리를 뒤로 좀 미룰 수 없냐고 했어요. 운동하다가 좀 안 좋아 보이면 생리 하냐고 묻는다가..”

— 대학생 선수,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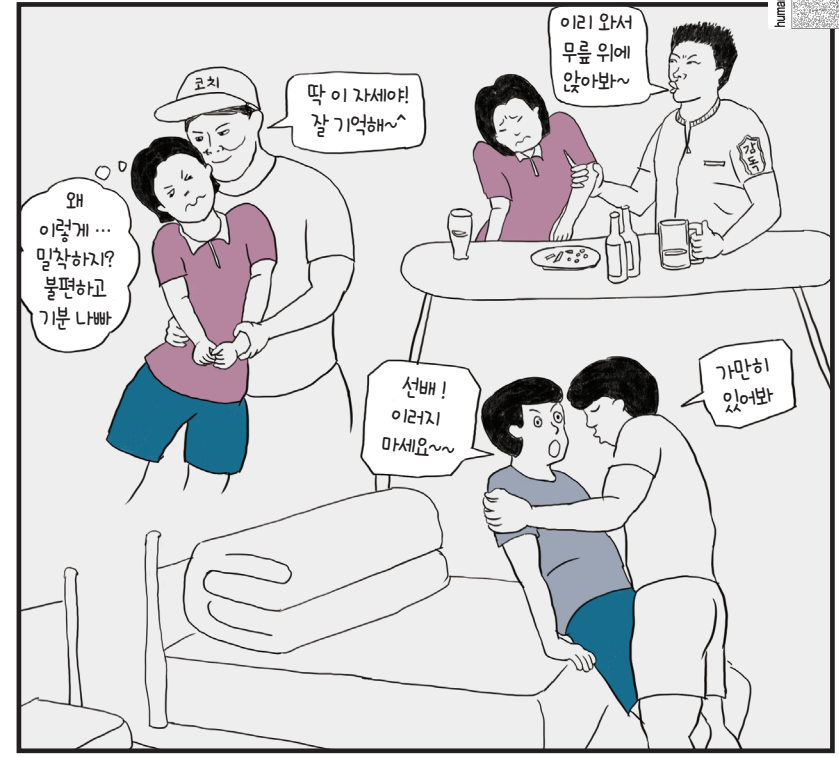
성폭력 가해자는?



* 실업팀 복수응답



여자선수에 대한 가해자는 남자감독과 남자코치가 많았고
남자선수에 대한 가해자는 동성 선배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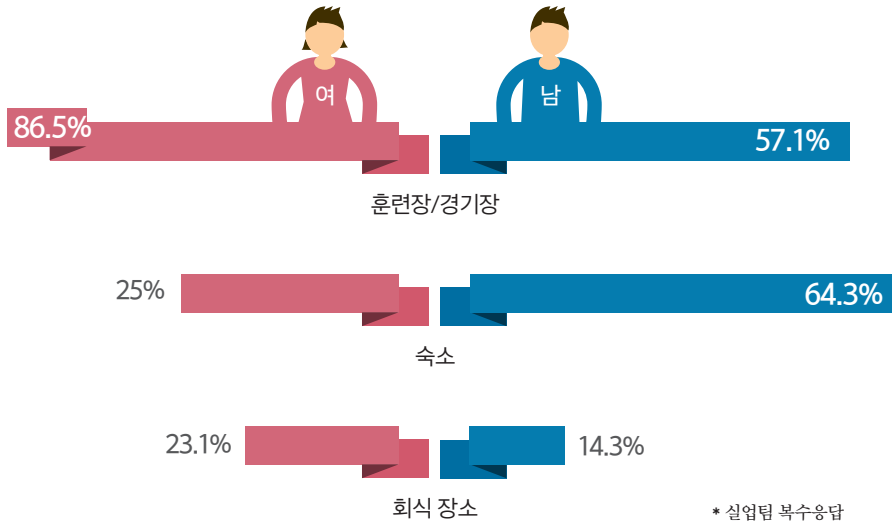
선수 interview

“엎드려서 하는 굳히기 있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손을 넣어서 잡고 돌리라 하는데 보는 사람도 수치인데, 남자 코치님이니까..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손을 넣어서 가슴 것도 잡는데..”
_ 고등학교 선수, 여자, 유도

“남자 감독님이 여자 선수들에게 지도할 때 터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봐’라고 할 때도 굳이 손을 잡는대거나..”
_ 대학생 선수, 여자

“어떤 지도자분들은 여자선수한테 술 마실 때 무릎 위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술 안 마셨는데도 그런 행동하기도 하고요. 그게 범법행위이고 여자선수한테 인권 침해사항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남자선배가 술 마실 때 불러서 옆에서 술 따르라고 하고, 먹으라고 하고, 전지 훈련 내내 거기 있던 오빠들이 여자는 어쩔다,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_ 실업팀 선수, 여자, 30대 후반

성폭력 발생 장소는?



* 실업팀 복수응답



여자선수에 대한 성폭력은
훈련장/경기장에서 훈련 중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숙소와 회식 장소도 많았다

남자선수에 대한 성폭력은 훈련장과 숙소에서 많이 발생했다



선수 interview

“부원들끼리 근처 오피스텔에서 저희들끼리 생활했는데.. 의외로 친구들이 많이 성희롱하고..”

— 중학생 선수, 여자, 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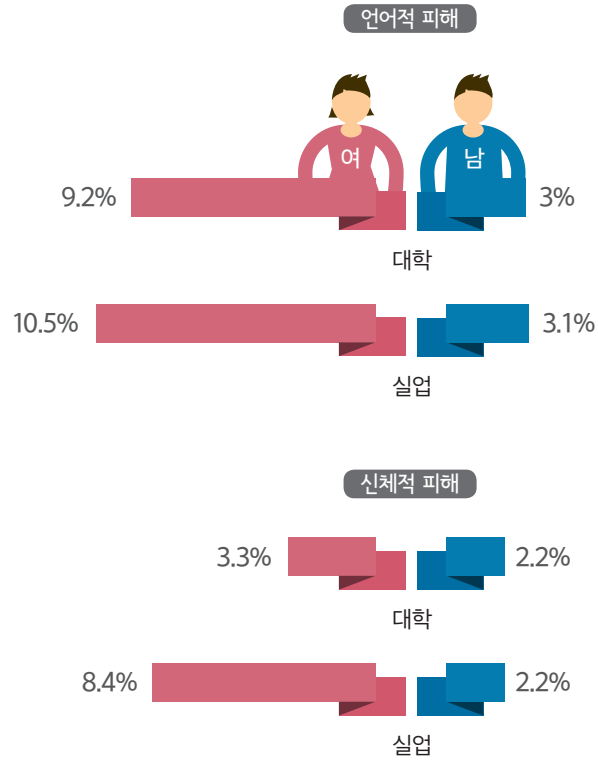
“시합 끝나고 경기장에 카메라가 집중됐을 때 감독님한테 뛰어와서 두 팔 벌려 가슴으로 안기지 않았다고 화가 난 거예요. 선생님을 남자로 보냐고, 왜 와서 선생님한테 가슴 대 가슴으로 못 안기냐고 그랬어요.”

— 실업팀 선수, 여자, 30대 후반

“시청 분들이 맨날 술자리에 끌고 나가요. 시합이 일주일 남았는데, 감독님 누구하고 친분을 쌓기 위해 술자리를 만들고, 회식 자리에 선수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7일 중에 7일을 술을 마신 선수도 있었어요. 술자리가 저녁에 시작되면 다음날까지 마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강압적으로 여자선수들한테 감독님 지인 분들을 소개해줘요. 계속 연락하라고 하고..”

— 실업팀 선수, 여자

성별 성폭력 피해 발생 차이는?



여자선수들의 성폭력 피해가 남자선수들보다 1.5~3배 많았고
신체적 피해는 실업팀 여자선수들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례수 대학 473명 / 실업 143명



선수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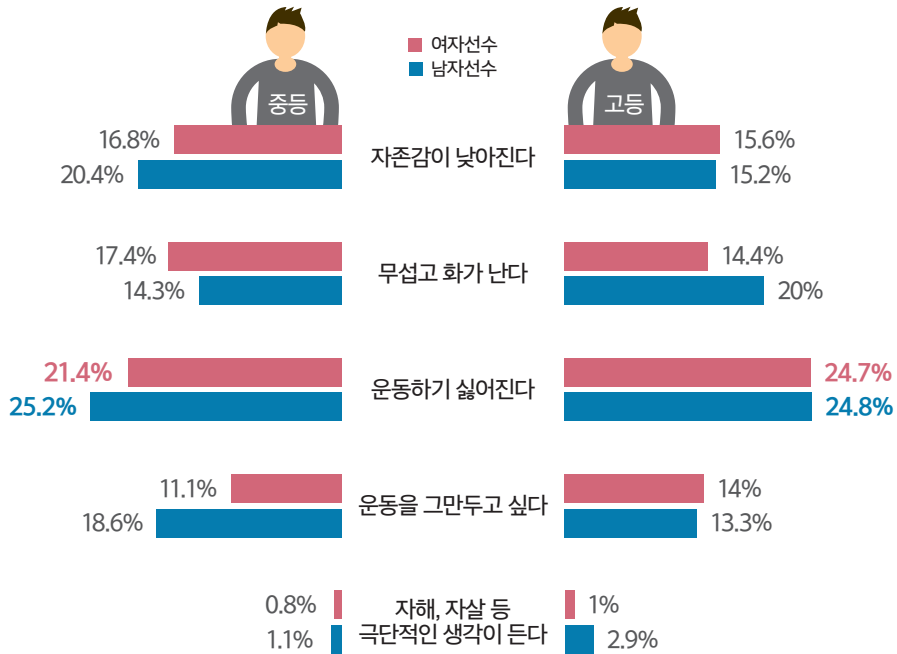
“저희는 도복훈련을 하면 타이즈만 입고 도복을 입기 때문에 풀어헤치면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남자들이 한 번씩 하자 해요. 하다 보면 운동에 집중해야 하는데 가슴을 보고 하는 것예요. 후배들이 운동 끝나고 ‘누나 B컵이에요?’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고등학생 선수, 여자, 유도

“유니폼을 입으면 타이트하게 붙으니까 몸이 드러나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여자가 좀 조심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뭔가 제도를 만들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실업팀 선수, 여자

성폭력을 당했을 때 감정은?



❖❖❖
 응답자의 많은 수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며
 운동에 대한 의지가 좌절된다고 했고
 일부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사례수 중등 1,071명 (여280,남791) / 고등 703명 (여210,남493)



선수 interview

“그 때 도장 사범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도장으로 옮겼어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동하고 있어요. 점점 심각해지는 성추행, 성폭력 예방을 위해 도장에 CCTV 설치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도장은 다시 운영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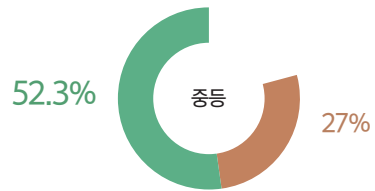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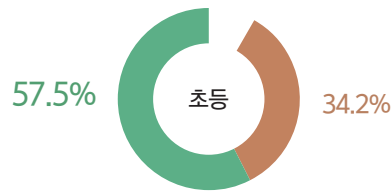
고등학생 선수, 여자, 태권도

“신체접촉이 많은 종목이다보니 훈련 중에 코치가 엉덩이를 만지거나, 지나가면서 스치듯 신체를 치고 가는 기분 나쁜 상황들이 많아요...”

장애인 선수, 여자

성폭력 피해에 어떻게 대응했나?

소극적 대처	적극적 대처
아무런 대처를 못함 -	-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함
괜찮은 척 함 -	-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남
얼굴을 찡그리거나 싫은 내색을 함 -	-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함



피해 선수들의 절반 이상이 소극적인 대처에 그쳤다
 적극적 대처는 상급 학교로 갈수록 줄어들어
 운동을 계속 하려면 폭력을 참아야 하는 구조임을 추측케 했다

사례수 초등 438명 / 중등 1,071명 / 고등 703명



선수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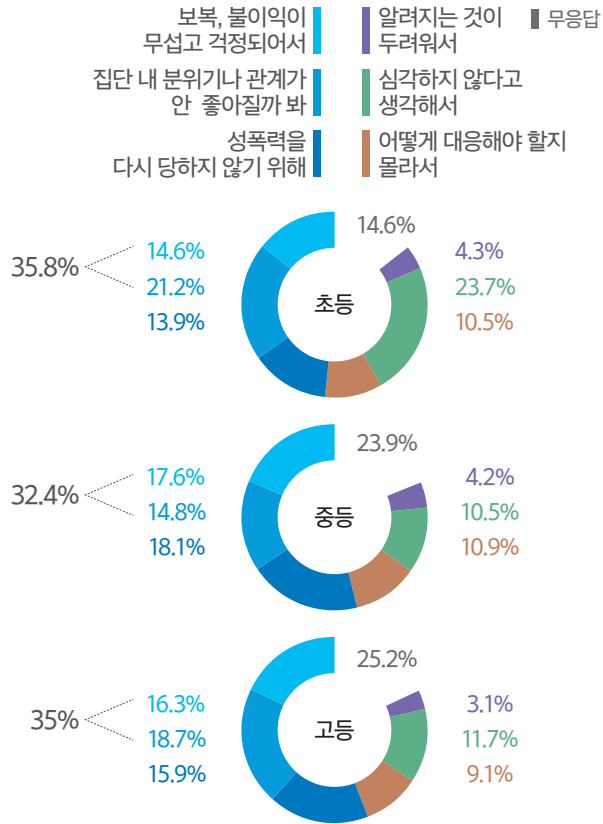
“같은 선수로서 성추행, 성폭행 그런 거 너무 안타깝죠. 진짜 나의 모든 거를 꺼내야 되는 거고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나가고 가해자가 벌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선수에게는 꼬리표가 생겨요. 내부의 일을 외부에 말한 배신자 이미지가 될 거고 그런 두려움이 많아서 숨길 것 같아요..”

_ 실업팀 선수

“주변 여자 동료선수가 피해 겪는 거 보았는데... 코치가 선수들 머리나 어깨 계속 만져서, 그 선수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신고하고 싶어 했지만 불이익 생각까봐 못했어요. 코치와 사이 안 좋아지면 경기 출전도 힘들어질 거고.. ”

_ 장애인 선수, 여자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수생활에 불이익을 입거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고
10명 중 1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고 응답했으며
초등생의 경우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

사례수 초등 438명 / 중등 1,071명 / 고등 703명



선수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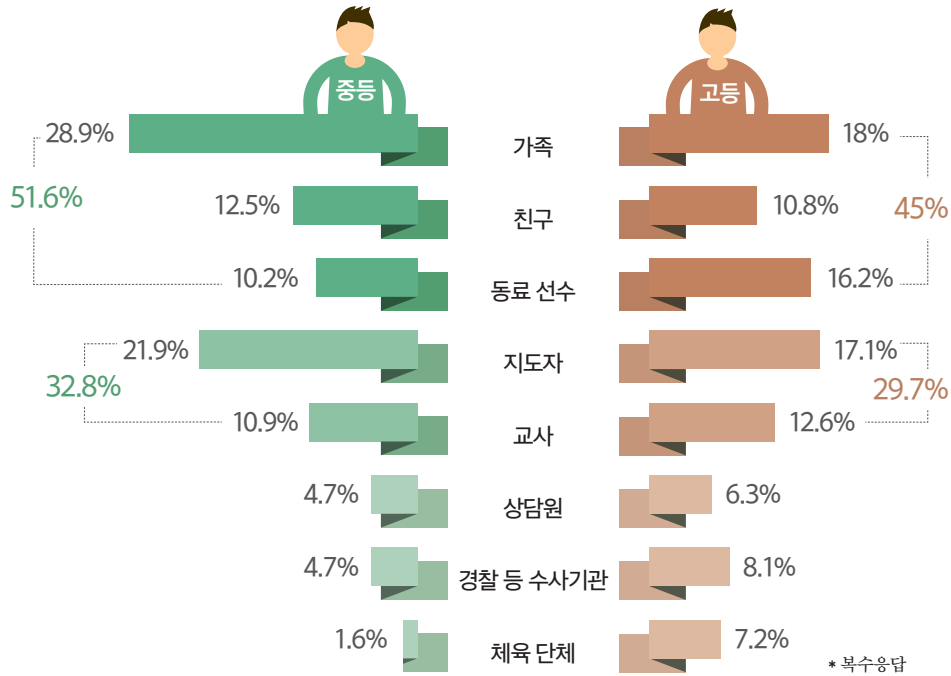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크게 알려지면 유도부 없어진다 그러니까. 제 선에서 끝내야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 고등학생 선수, 남자, 유도

“성폭력 피해에 대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신고 했을텐데..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 요. 하지만 그 당시 신고기관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불이익 받을까봐 신고 못했을 거예요..”

— 장애인 선수, 여자

성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50% 정도는 사적 관계인 가족이나 친구, 동료선수였으며,
30% 정도는 지도자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관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선수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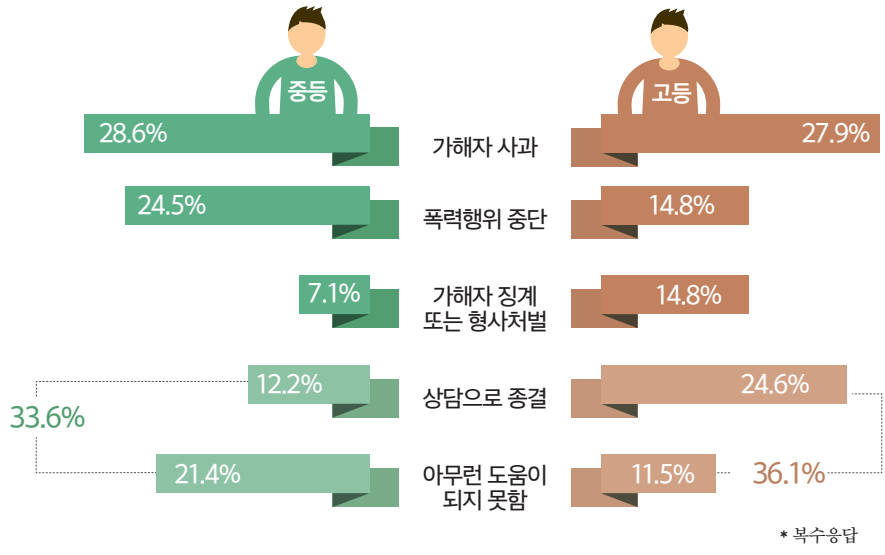
“코치 선생님한테 개인지도 받을 때 민감한 부위를 계속 추행을 하는데 감독님한테 알리기도 그 려고.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넌지시 말하기는 했는데 개들도 학생이니까 어떻게 해보자는 답보다는 같이 욱하고 마는..”

— 고등학교 선수, 여자, 양궁

“지체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어 운동부 안이든 밖이든 도움을 청하더라도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어떤 도움도 받기 어려운 것이 장애인들이에요.”

— 장애인 선수, 여자

성폭력 피해 시 도움요청 결과는?



피해자 3명 중 1명은
상담에 그치거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실질적인 도움과 해결 비율이 더 높아져야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사례수 중등 75명 / 고등 47명



선수 interview

“남자 선수들이 야한 농담도 하고 자꾸 짹짹대고 감독님께 말씀드렸더니 감독님이 그 쪽에 주의 주시고 사과받는 수준으로 끝났는데.. 계속 마주칠 때마다 기분 나쁘고 싫었어요..”

— 고등학생 선수, 여자, 빙상

“여자 선수들한테 계속 문제 일으켰던 감독이 있었는데.. 누가 신고해서 조사받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파면될 줄 알았죠.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복귀했어요. 엄청 놀랐죠, 다들 팀을 떠나고 싶대요.”

— 대학생 선수

성폭력, 이렇게 예방하고 대응해요

선수

- ◆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은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나의 입장에서 장난으로 했다 라도 상대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심리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 ◆ 언어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종류의 성희롱과 성추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료나 선배, 지도자로부터 성적인 언사와 추행을 겪은 경우, 싫다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 교사, 외부 전문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 동료나 선배, 지도자로부터 직접 성폭행을 당한 경우, 또는 동료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경우, 숨기지 말고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덮고 넘어가는 것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 좋지 않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문제제기하기 위해서는 목격자나 주변인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부모

- ◆ 자녀가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 ◆ 부모에게는 학교나 소속팀, 지도자에게 자녀가 성폭력 없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자녀가 운동부 내 선수에 의해서 또는 지도자에 의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인지했을 때 주저 없이 해당 지도자나 기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폭력 피해가 처리되도록 감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습니다.

지도자

- ◆ 스포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 성폭력은 피해 선수의 인격과 선수로서의 생활에 커다란 상처를 입힙니다. 지도자는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성희롱 및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 면담, 훈련 등 어떤 목적으로도 숙소, 차량 등 밀폐된 공간에서 지도자와 선수 둘만 있는 것을 금합니다.
- ◆ 지도자는 훈련 및 사석에서 선수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성적 언급이나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지도자가 선수의 방을 방문할 때 또는 선수가 지도자의 방을 방문할 때, 방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 ◆ 지도자는 선수와 신체적 접촉을 금하고 훈련 상 불가피한 경우 그 필요성과 범위를 선수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 지도자는 학생선수와 데이트,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모든 윤리적·법적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 ◆ 지도자는 선수들 간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해야 합니다. 만일 지도자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거나 상담을 받았을 때는 은폐하는 일 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운동부가 성폭력에 대비하고 있는지 체크해봅시다

정책

- ◆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이 있다.
- ◆ 성폭력 예방과 대응 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예방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상별 행동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
- ◆ 지도자 채용 시 스포츠 성폭력 이력 등을 확인한다.
- ◆ 지도자 채용 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를 알리고 행동 동의를 받는다.
- ◆ 여성 스포츠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계획과 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

교육

- ◆ 지도자, 선수, 학부모, 자원봉사자, 행정담당자, 의료진 등 스포츠 공동체 관계자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대처

- ◆ 성폭력 피해자나 보호자가 참고할 상담, 조사, 구제 매뉴얼이 있다.
- ◆ 성폭력 피해 발생 시 공정하게 다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 ◆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상담과 지원을 담당할 상담원이 있다.
- ◆ 상담과 지원을 담당할 상담원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있다.
- ◆ 성폭력 조사 및 가해자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 ◆ 스포츠 성폭력 예방 정책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평가할 기준을 갖추고 있다.
- ◆ 스포츠 성폭력 예방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고 있다.

행정당국도 다음과 같은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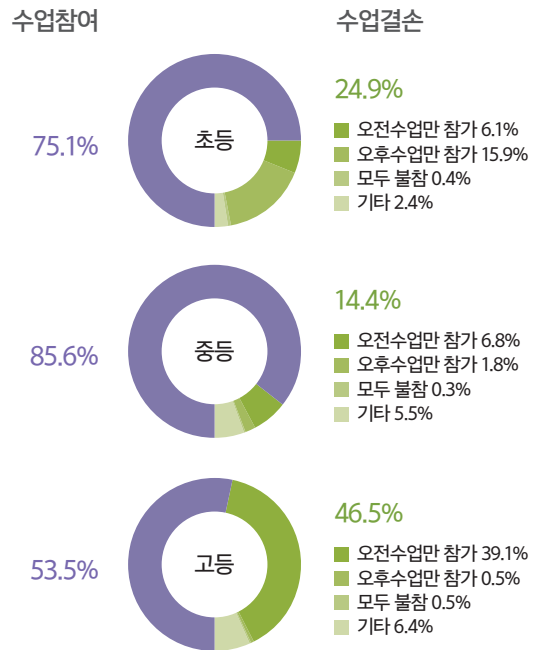
-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성폭력 근절과 대처를 위한 정책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한 경우 그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한다.
- ◆ 개별 운동부나 행정당국에 성폭력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처리가 지연 또는 무마되거나, 관대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감독한다.
-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가 축소되어 진행되는 일이 없는지, 신고 취소나 합의를 유도하는 일이 없는지 감독한다.
- ◆ 성폭력 사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주의·경고와 같은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거나 임의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 ◆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현장에 있지 않도록 지도한다.
- ◆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이나 분별없는 조사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 성폭력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지도자나 선수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도록 하며, 징계 대상자들이 지역이나 직장을 옮겨 체육현장에 복귀하지 않도록 관련자 정보를 관리하고 타 기관과 공유한다.

학습권 침해

학생선수도 학생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할 권리가 있어요

학생선수들의 과잉 훈련은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을 빼앗고 학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만 한 학생은 고등학교 때에 이르면 이미 어려워진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고 운동 외 다른 선택이 제한됩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유스팀의 훈련시간은 방과 후 2-3시간뿐입니다. 미국의 경우 놓친 과제나 학습 보충을 위해 운동선수를 위한 학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체성과 인격 형성, 자기개발의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지적 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재능을 실현하면서도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습 결손 정도는?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수업결손을 겪고 있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수업결손이 나타났다
초, 중, 고 모두에서 수업을 전혀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다

사례수 | 초등 18,007명 / 중등 21,952명 / 고등 17,598명



선수 interview

“수업 들어가는 거는 제가 결정하지 않고요... 부감 선생님이랑 코치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수업일 수 정해주세요.”

_고등학생 선수, 남자, 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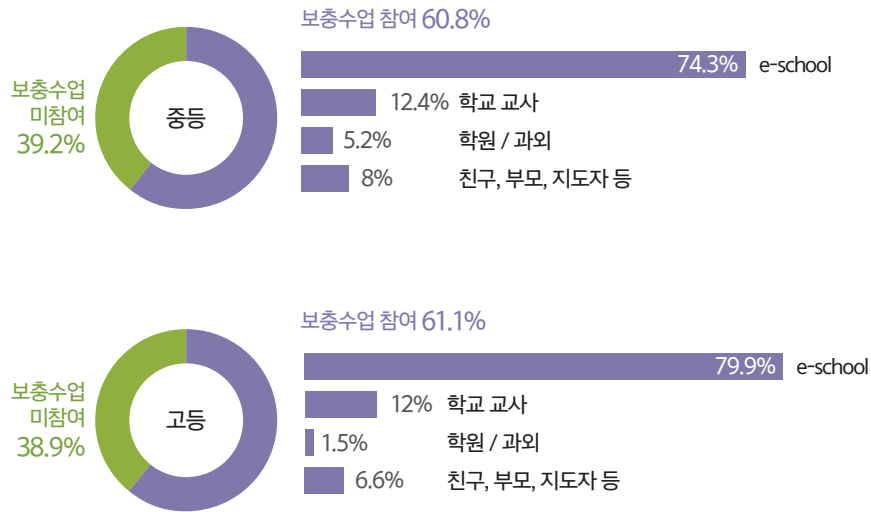
“대회 나갈 때는 하루에 네 번씩 연습해요.. 새벽, 오전, 오후, 야간에... 수업은 아예 힘들죠..”

_고등학생 선수, 남자, 체조

“진짜 훈련량이 너무 많아 당장 수업 들어갈 생각은 못하고 그냥 합숙소 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_대학생 선수

보충수업 참여와 참여 방식은?



중고 모두에서 보충수업조차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보충수업을 받는 경우에도 주로 e-스쿨로 이뤄지고 있어
대면수업의 아쉬움이 있다



선수 interview

“시합 갔다 오면 쉬어야 하는데, e-스쿨해야 해요. 강제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아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e-스쿨이냐고요...”

— 고등학생 선수, 남자, 축구

“솔직히 e-스쿨로 뭔가 배웠다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채워서 학교 최저 학력 채우는 거죠. 거의 들어도 저희가 모르니까...”

— 고등학생 선수, 남자, 테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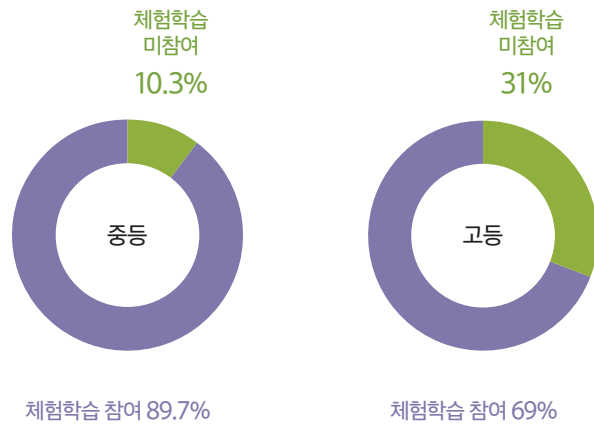
“e-스쿨요?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시간만 채우면 돼요.”

— 고등학생 선수, 남자, 체조 A

“저는 e-스쿨 영상 틀어놓고 운동해요. 어쩔때는 단체로 e-스쿨 틀어놓고 훈련해요...”

— 고등학생 선수, 남자, 체조 B

학교 행사에 대한 참여 정도는?



교실 수업 못지않은 학습효과와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현장 체험학습에도 빠지고 있으며,
고교생의 경우 더욱 높았다



선수 interview

“시합이나 훈련 참가해야 해서 친구들과 학교 체험학습을 같이 못가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싶고 놀고 싶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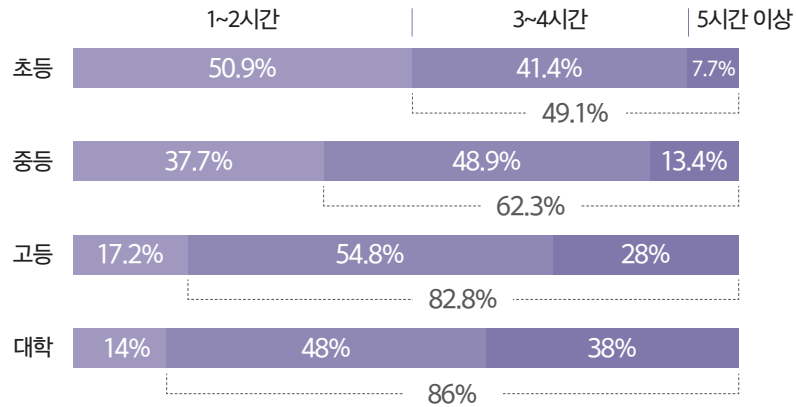
—고등학교 선수, 여자, 수영

“시합 가는 것도 개인적인 시합은 현장체험학습으로 돌려서 가요.. 수업 안듣고.. 시합가기 전에는 수업도 몇 주 빠질 때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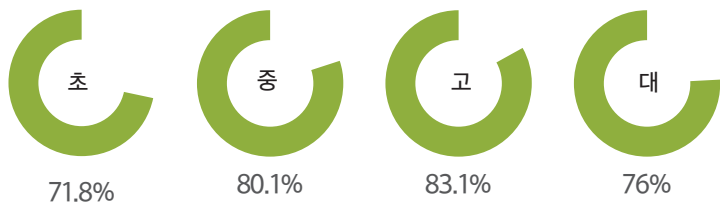
—고등학교 선수, 남자, 테니스

평균 운동 시간은?

시합이 없는 평일 운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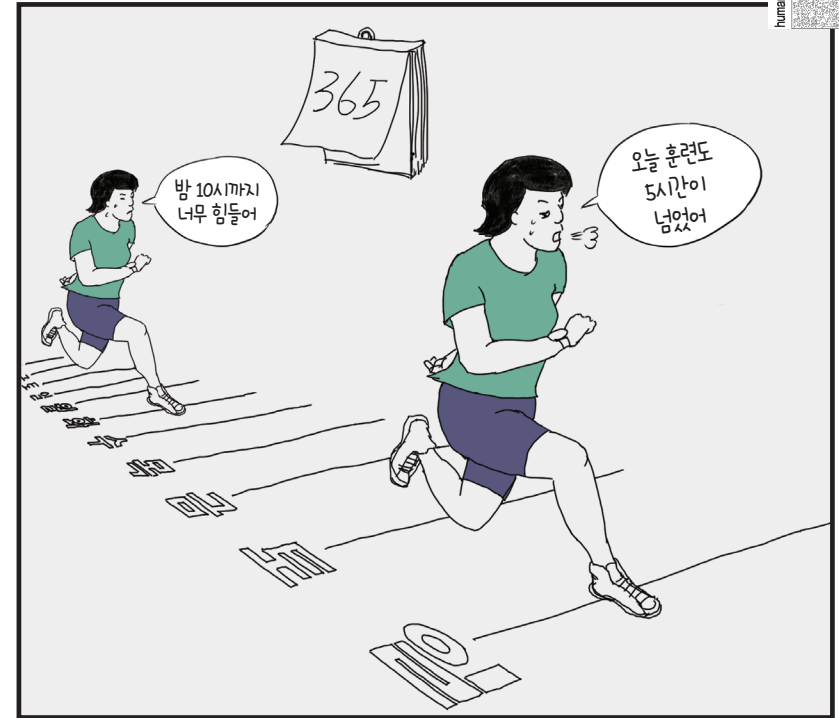


주말 운동 실시



초등생의 절반이 평일 3시간 이상 훈련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5시간 이상 훈련도 상당했다
초, 중, 고, 대 모두에서 대부분 주말 운동을 하고 있었다

사례수 초등 18,007명 / 중등 21,952명 / 고등 17,598명 / 대학 4,924명



선수 interview

“주말에는 훈련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선수, 여자, 롤러스포츠

“한 달에 한 번은 쉬고 싶어요.”

초등학생 선수, 남자, 야구/소프트볼

“저녁 10시까지 운동하기 때문에 11시 30분쯤 취침을 해서 충분히 못자고 있어요.”

고등학생 선수, 남자, 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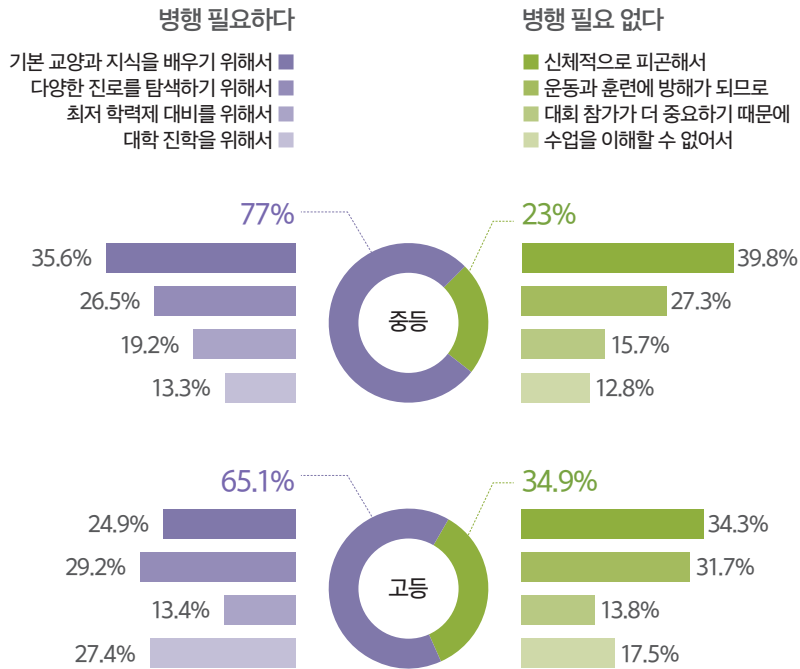
“훈련시간이 너무 길어서 훈련하기가 싫어지고, 그만 두고 싶어요. 학교 동아리 시간까지 만들어가고 훈련을 해서 하루에 6시간씩 운동할 때도 있어요.”

고등학생 선수, 남자, 역도

“프로 가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운동량이 너무 많아서 아예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니까 힘들죠. 또 단체 훈련하는 만큼 실력이 느는지도 의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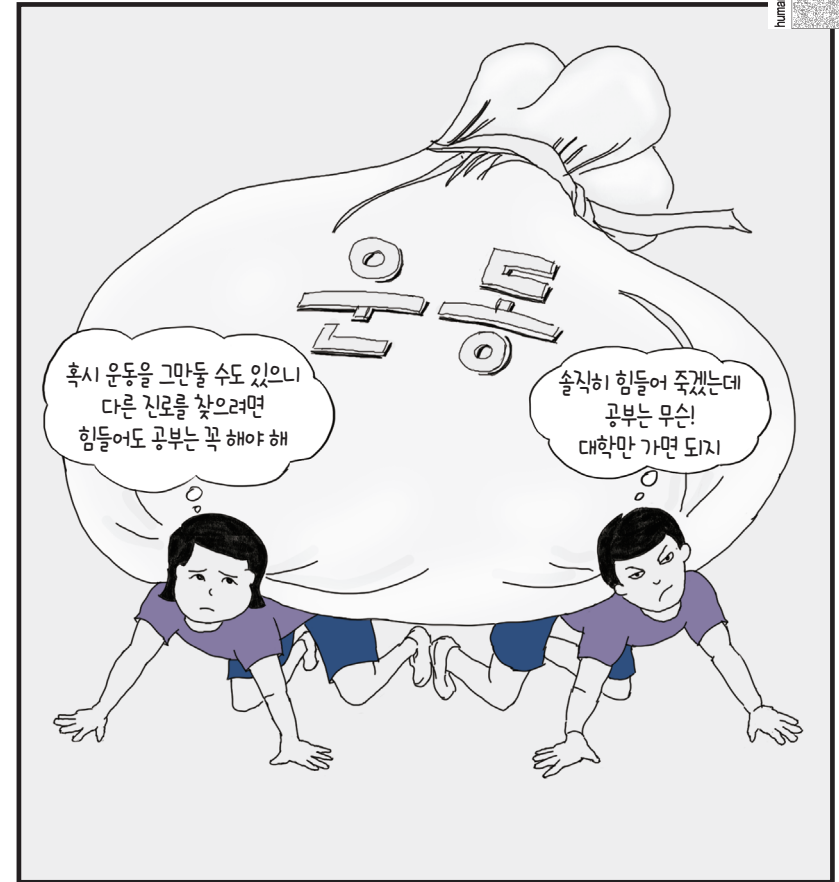
대학생 선수

운동과 학업의 병행에 대한 생각과 이유는?



대부분의 선수는 교양과 지식을 배우고, 진로 탐색과 대학진학을 위해 운동과 학습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일부 선수는 운동과 대회 참가가 우선이며,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 학습을 병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례수 중등 21,952명 / 고등 17,598명



선수 interview

"나중에 제가 부상으로 다치거나 하면, 운동 쪽으로 못 가게 되면 다른 길을 잡아야 하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중학생 선수, 여자, 태권도

"공부요?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과목도 엄청 많고.. 운동해서 대학만 가면 되잖아요.."

— 고등학생 선수, 남자, 축구

"대회 다가왔을 때는 컨디션 조절한다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훈련 안하는데.. 평소에는 너무 운동량이 많아서 공부라든가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 대학생 선수

학습권 침해, 이렇게 예방하고 대응해요

선수

- ◆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나의 정체성과 인격을 형성하고, 기초학력과 소양을 쌓으며, 진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운동 못지않게 공부와 학교생활, 친구와의 교제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 ◆ 학생은 마땅히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학교에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학업과 운동 모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

- ◆ 학부모는 지도자, 학교 당국과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주체입니다. 학령기에 있는 자녀는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하여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진로에 대비해야 할 학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학부모는 자녀가 운동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훈련과 경기로 놓친 학업에 대한 보충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독려해야 합니다. 경기 성적을 위해 학업을 방치하거나 운동만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 학생선수의 원활한 학습을 돕기 위해 학부모는 학교당국이나 지도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도자

- ◆ 지도자에게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은 상급학교 진학과 졸업 후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소양을 익혀야 하는 학령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운동부 활동 속에서 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학생선수가 학업을 자기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운동과 학업을 균형 있게 병행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에게 적절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양적인 훈련에 의존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훈련방법을 연구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 ◆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의 인성이 균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며, 페어플레이 정신과 더불어 경기 성적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 ◆ 지도자는 학생선수가 훈련이나 경기 활동으로 학습 시간과 기회를 방해받을 경우 학교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지키고 있는지 체크해봅시다

정책

-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 학습권 보호정책의 실행을 위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였다.
- ◆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자 별로 지켜야 할 세부 행동규범을 갖추고 있다.

실행

- ◆ 선수별 수업참여와 학습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한다.
- ◆ 학습결손 부분을 지원할 보충학습 시스템과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다.

교육

- ◆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학습권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대처

- ◆ 선수별 수업 참여정도를 기록하며, 보충수업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 ◆ 학습권 침해 시 참고할 상담, 조사, 구제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모니터링 및 평가

- ◆ 학습권 보호 정책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평가할 기준을 갖추고 있다.
- ◆ 학습권 보호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고 있다.

행정당국도 다음과 같은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 ◆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수업 결손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보충수업이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보충수업을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한다.
- ◆ 학교가 선수, 지도자, 부모 대상으로 학습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 수업결손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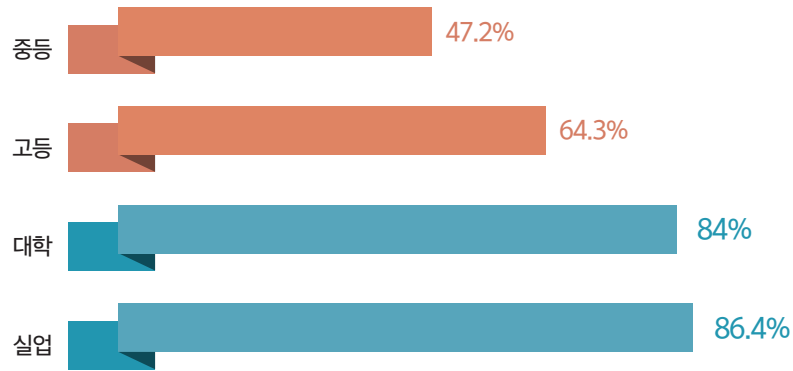
5

사생활 침해와 불공정

공정하지 않으면 스포츠가 아닙니다

스포츠 공동체 속에 만연한 권위주의적 문화는 겉보기에 질서가 잡혀있고 목표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고, 조직 분위기를 경직시켜 문제점을 개선하기 힘들게 합니다. 지도자와 선수, 선배와 후배 간에 일어나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한 요구,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한 계약관계, 그리고 여자 선수들이나 장애인 선수들이 겪는 차별도 권위주의적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권이 배제된 스포츠는 선수의 몸과 마음을 혹사하는 고된 노동이 되고 맙니다. 인권의 관점으로 스포츠를 바라보며 공정하고 평등한 문화 안에서 기량과 팀워크를 키워가야 합니다.

기숙사 또는 합숙 경험 정도는?



◆◆◆◆
중고생의 50% 전후가 합숙소 경험이 있었으며
대학생과 실업팀은 선수의 대다수가
합숙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 | 중등 21,952명 / 고등 17,598명 / 대학 4,924명 / 실업 1,251명



선수 interview

“꼭 숙소생활이 필요한가요? 숙소생활 하면 폰이 없어요. 폰을 걷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집밥도 그리워요. 라면, 씨리얼 지겨워요.”

— 중학생 선수, 남자, 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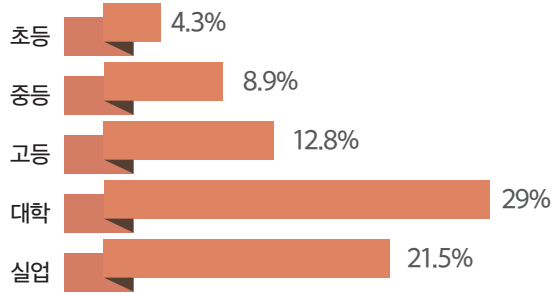
“지도자들은 무조건 합숙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통학을 하게 되면 집이 먼 선수들이 불공평해진다 고 하면서... 또 단합을 위해서도 합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지 모르겠어요.”

— 고등학생 선수, 남자, 축구

단체 생활에 따른 문제는? ①



선배와 지도자를 대신해서 잡일 부담



선수 중 적지않은 수가
원하지 않는 심부름, 빨래, 청소를 대신하고 있으며
합숙소 생활이 많은 대학생과 실업팀 선수의 고충이 컸다



선수 interview

“빨래, 심부름, 청소 등은 당연히 후배가 해야죠. 코치님들 일 담당하는 애들도 한 명 지정하기도 하고... 선배들이 화장실, 복도 청소하라고 하죠.”

— 중학생 선수, 남자, 야구

“선배가 잔심부름 같은거.. 물 떠와라, 아니면 휴지 가져오라고 하거나 빨래도 시켜요. 왜 시키냐고 물어보면 너희들도 크면 후배한테 시킨다고. 나도 이렇게 했다고. 빨래, 수선 맡기는 것 무조건 1학년에 다 해야 해요.”

— 대학생 선수

“선후배 관계 많이 힘들어요. 선배가 왕이죠. 후배가 식사, 설거지, 빨래, 청소, 잔심부름 등 숙소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요. 운동용품 챙기고 이런 거는 후배들이 많이 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빨래를 개서 넣어줘야 해요. 빨래 너는 것도 힘든데 마르면 개어서 옷장에 넣어줘야 해요.”

— 실업팀 선수

단체 생활에 따른 문제는? ②



개인, 자유시간, 사생활에 대한 간섭과 통제



성인 선수임에도

외출, 외박의 불허, 운동 이후 자유시간 부족, 사적 공간과 시간 부족 등 생활통제에서 비롯된 애로를 겪고 있었으며 열악한 시설, 선후배 갈등과 같은 고충도 토로하였다



선수 interview

“합숙소에서 나가는 건 다 허락을 받아야 해요. 아파서 병원가려고 할 때도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해요. 다 큰 성인이 이게 뭔가 싶죠..”

— 대학생 선수

“저희는 합숙소 생활에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요. 10만원이나 100만원이요. 작은 잘못은 10만원, 폭력이나 무단이탈 그런 거는 100만원이요. 숙소 내 음식물은 아예 반입금지구요. 그 외의 규칙은 선배 언니들이 다 정해요.”

— 실업팀 선수

“언니들이랑 쓰는 게 진짜 불편했죠. TV도 못 봤어요. 문도 조용히 열고 나가야 했고... 여자 지도자들도 힘들었어요. 숙소에 아무 때나 맘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녀요. 사람장 같은 거 열어보면서, 야 옷 이거 정리 안 하나 이러면서, 사람장에 개인서류 같은 거 보면서, 누가 뭐했네, 뭐했네 하면서 다 봐요.”

— 실업팀 선수

“밤에는 숙소에서 외출을 마음대로 못 하죠. 저녁 10시 이후에는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교도소처럼 생활하는 거죠... 점호시간이 있고요.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주말에도 못 나가요. 훈련이 있으니까요.”

— 실업팀 선수

단체 생활에 따른 문제는? ③



운동과 무관한 외모에 대한 간섭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착용, 복장 등
운동과 무관한 외모 관리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었다



선수 interview

“제 나이가 스무 살인데도 염색, 외모 같은 것.. 지켜야 하는 규제가 한도 끝도 없이 많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매일 억압하는 분위기와 표정 지으면서.. 말로 계속 주의를 주고 제 자유란 절대 없어요.. 큰 폭력은 없지만 운동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터치를 하면서 힘들게 합니다.”

- 대학생 선수

“저희는 생활복이 따로 있어서 밥 먹을 때도 옷 맞춰서 입어야 되고.. 월요일은 파란 색, 다음 날은 빨간 색 이런 식으로.. 사복은 입으면 안돼요.. 감독님이 평상시에 단정히 해야 경기장에서 단체정신이 나온다고..”

- 대학생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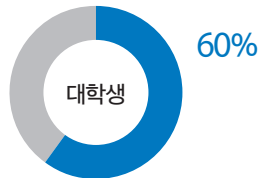
“머리나 복장 규제는 절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머리카락 때문에 훈련이나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경기할 때야 복장 규정이 있으니까 지키고 입어야 하지만, 경기 없을 때는 자유롭게 사복 입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 대학생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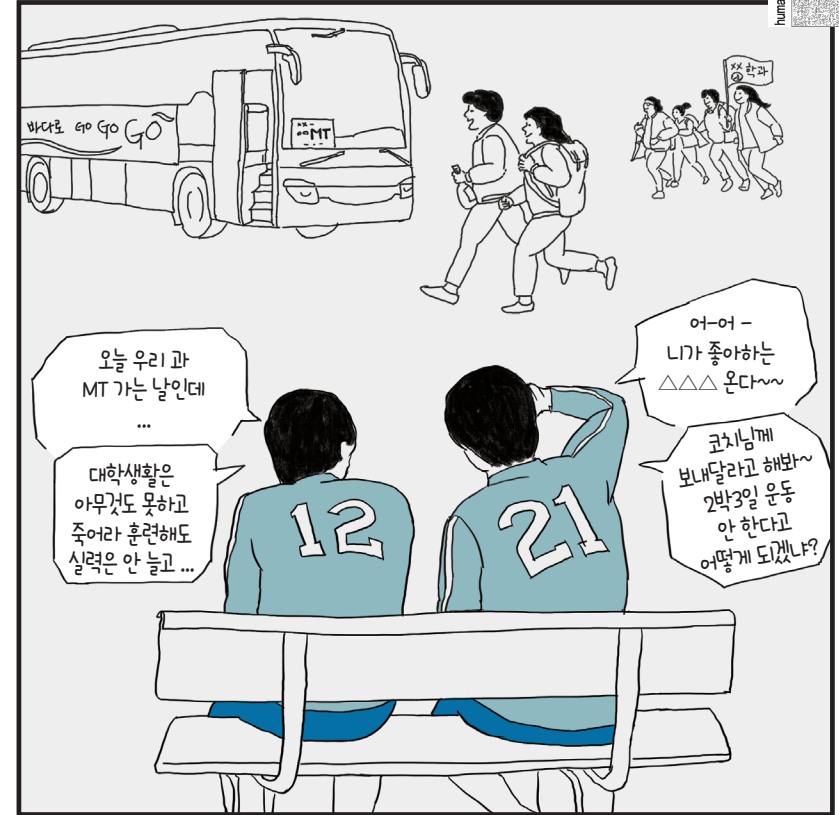
대학생 선수들의 고충은?



학업, 친교, 동아리 활동 불참



대학생 선수의 다수가 과도한 운동량으로
학교수업이나 대학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성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다



선수 interview

“대학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운동만 하니까 즐기지를 못해서.. 일반 학생들과는 거의 교류하기 힘들어요.”

- 대학생 선수

“학과 행사나 축제 같은 것에 참여하고 싶은데.. 훈련시간도 겹치고 숙소에 9시 반까지 들어가야 해서 힘들죠. 그런데 저희한테는 소소한 재미인데.. 아쉽죠.. 컨디션 조절 때문에 가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 대학생 선수

“OT나 MT 이런데 다 안가니까 일반 학생들과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어요. 형들이 코치님한테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왜 가냐고.. 운동 더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 대학생 선수

실업팀 선수들의 고충은? ①



원치 않는 회식



실업팀 선수들 일부는
원치 않는 회식 참석이나 음주를 강요받고 힘들어 했다

사례수 실업 1,251명 (여616,남635)



선수 interview

“미리 통보도 없이 갑자기 감독이 오늘 회식 있다 나와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이니까요. 제가 약속이 있어도 어쩔 수 없죠. 운동선수는 빨리 쉬고 회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감독은 자기가 끝나야 회식이 끝나는 사람이라서 힘들죠. 어제도 먹기 싫은데도 술을 먹어야 하고 2차 노래방 가서 12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선수들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_ 실업팀 선수, 여자

“시합이 일주일 남았는데 감독님이 누구하고 친분을 쌓으려고 술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요. 나가면 일찍 끝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감독 본인이 다 마셔야 끝나는 거죠. 7일 중 7일을 술먹은 친구도 있었어요.”

_ 실업팀 선수, 여자

실업팀 선수들의 고충은? ②



WE NEED SCIENTIFIC SPORTS GUIDANCE SYSTEM



지도자 개인의 스타일이나 감정에 의존해 훈련하는 경우가 많고
지도자의 갑질에 시달리기도 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방식이 필요하다



선수 interview

“감독과 코치는 선수를 케어하고 선수 컨디션이 올라오도록 해주는 사람인데, 오히려 대우만 받으려고 해요. 비인기 종목이라 같이 배워가는 입장인데.. 선수가 숙이거만 바라니까 서로 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소통 보다는 무조건 갑과 을, 내가 말하면 들어야 해 이런 식이에요.”

— 실업팀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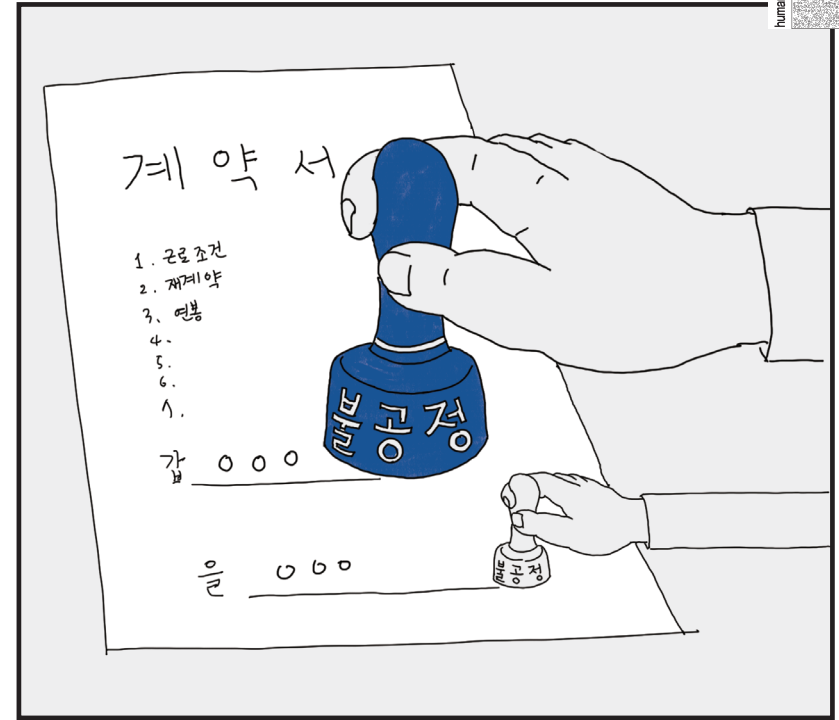
“감독님은 무조건 강제적이에요.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세요. 대표팀에서 배웠던 걸 팀에서 하면 마음에 안들어 해요. 그냥 지도자한테 다 맞춰야 하니까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지도자는 저희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훈련방법도 잘 모르시면서 공부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해 디테일하게 지도자로서 짚어줄 수 있어야죠..”

— 실업팀 선수

실업팀 선수들의 고충은? ③



본인의 연봉은 물론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재계약 여부와 연봉, 근로조건도 공식적 협의보다
지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비밀비재 했다



선수 interview

“계약 기간 중에도 선수가 맘에 안들면 감독이 방출시킬 수 있어요. 선수를 괴롭혀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저같은 경우 아파서 몇 달 쉬고 있으니 반협박으로 사직서 쓰라고 했어요. 잘 치료 해서 시합을 뛰겠다 했는데, 니가 있고 싶어도 계약서상 감독의 권리로 자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사직했죠.”

- 실업팀 선수

“감독이 좋은 선수 데리고 오려고 장난을 치죠. 선수에게 일단 금액을 많이 제시하죠. 다른 팀들이 보통 11월 중순에 계약을 마치니까 12월까지 계속 미루다 계약을 해요. 그런데 선수가 회사랑 만났을 때는 그 연봉이 아닌 거예요. 갈 데가 없어지니까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는 거죠.”

- 실업팀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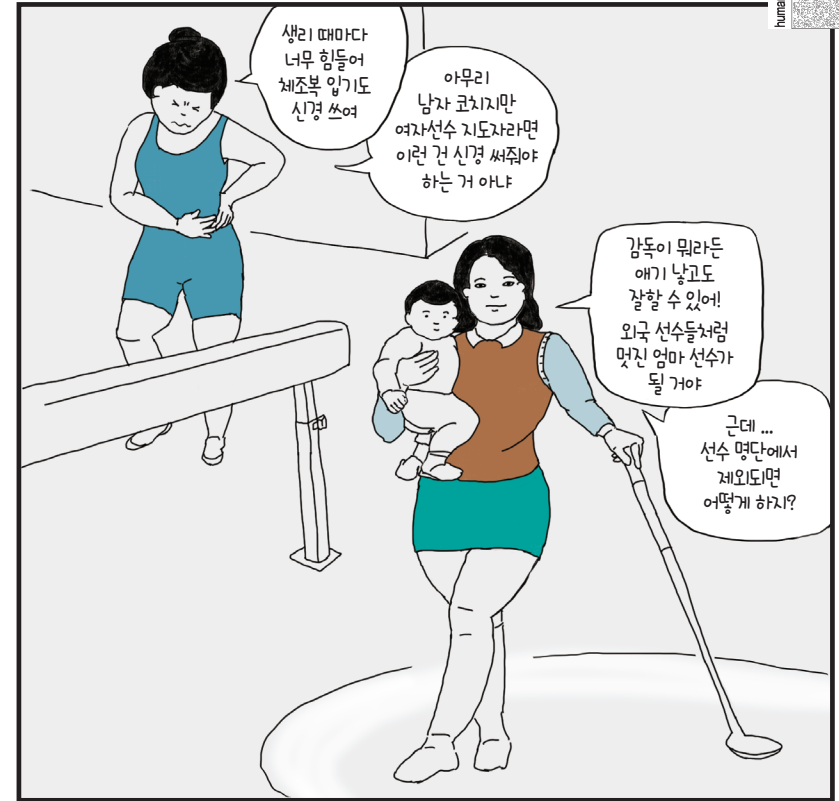
“계약 내용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자기들이 피해 안 보려고 선수들한테 불리한 내용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 실업팀 선수

여자선수들이 겪는 고통은?



성인 여자선수들은
무리한 훈련과 부상에 따른 컨디션 악화 외에도
생리·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 보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을 힘들어 했다



선수 interview

“여자 선수들은 보통 결혼을 은퇴 직전 1-2년 전에 하죠. 현역 때 결혼했다면 출산은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요. 그러다보니 모성보호 제도도 쓸 필요가 없죠. 제가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한다고 했을 때부터 명단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어요. 애기 낳고도 나는 자신 있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감독이 ‘할 수 있어? 힘들 겠?’ 이런 식으로 못마땅해 했어요. 외국 선수들 경우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잖아요. 선수 개인에 따라, 몸 관리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거의 애 낳고 30대 중후반 되면 다들 그만두고 다른 일 하시더라고요. 코치를 하든, 심판으로 가 시든가. 아예 그만두고 사업을 하시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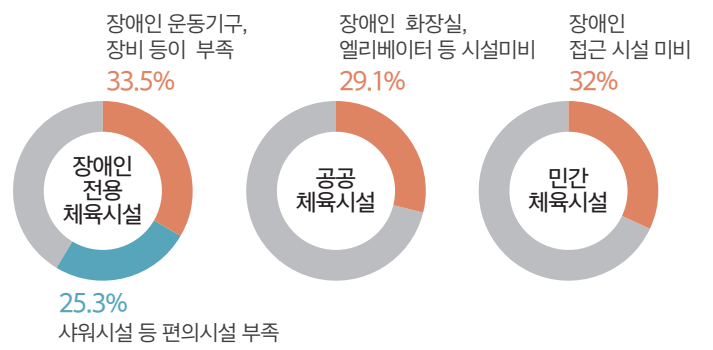
— 실업팀 선수, 여자

“생리를 하더라도 말도 못하고, 매우 심한 생리통이 있는 경우에도 휴식을 요청할 수 없어요. 지도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오히려 피병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선수

장애인 선수가 겪는 차별적인 환경은?

운동하기에 부족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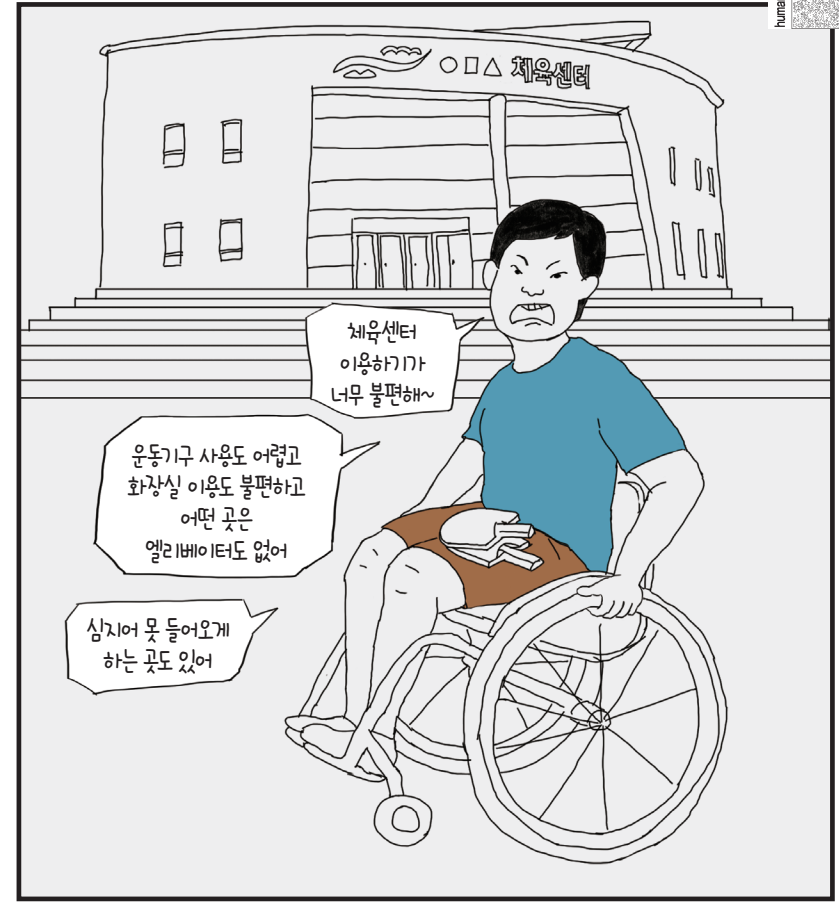


이용하기 어려운 체육시설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운동기구 등이 미비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웠고,
장애를 이유로 시설 이용 자체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다

사례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 장애인 316명 / 공공 체육시설 이용 장애인 915명 / 민간 체육시설 이용 장애인 896명



선수 interview

“운동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어서 주말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싶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받았다고 동료 장애인선수들이 말해줘서 아예 가본 적이 없습니다.”

— 장애인 선수

“주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오래 전에 지은 시설이라 주차장도 부족하고 셔들 간격도 길고 사위시설도 낡아서 이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민간 체육 시설의 경우 아무래도 일반인 이용 중심이라 시설 자체가 장애인 친화적이지 못합니다.”

— 장애인 선수

사생활 침해와 불공정, 이렇게 예방하고 대응해요

선수

- ◆ 스포츠는 평등한 집단 활동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연대와 협동이 중요하며, 공정한 규칙과 동등한 조건 속에서 결과에 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입니다. 지도자와 선수, 선배와 후배 간에 위계를 만드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문화는 스포츠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 ◆ 선수들은 훈련과 경기 출전 뿐 아니라 사생활이나 선수관리 등의 운동환경에서도 인격과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합니다.
- ◆ 지나친 운동지시나 휴식의 제약, 단체 생활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간섭과 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계기관에 알립니다.
- ◆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신체 건강과 모성보호권 침해, 장애인 운동시설의 부족과 불편,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 ◆ 선수 스스로도 동료나 후배 선수들에게 부당한 간섭과 요구,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모

- ◆ 부모는 자녀들이 합숙생활 중에 지도자나 동료 선수들에 의해 부당한 지시나 요구,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는지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 ◆ 부모는 자녀들의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받고 있는지 살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지도자나 관계 기관에 알려 해결해야 합니다.
- ◆ 부모는 스포츠를 겉과나 성적, 입시 위주로 접근하는 시각을 버리고 자녀 개인의 선택과 권리가 보장받는 속에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도자 및 실업팀 운영조직

- ◆ 운동선수 개개인은 인격체로서 사생활을 존중받고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내부 규율이나 운동 성적, 팀워크 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 지도자는 수평적 의사소통과 과학적인 훈련방식 속에서 선수들의 기량이 충분히 발휘되고 경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강압과 통제, 질보다 양에 의존한 훈련방식을 지양해야 합니다.
- ◆ 지도자는 선수들의 합숙소 선택권을 보장하고, 외출이나 외박, 외모 꾸미기 등 운동과 무관한 선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지도자는 적절한 운동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해서 지켜야 하며, 운동 이외의 시간과 목적으로 선수를 호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 지도자와 운영조직은 선수의 약점이나 성적 부진을 이유로 부당한 계약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성인선수의 사생활과 여성선수의 생리·출산·육아와 관련된 건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 지도자는 선수들 간의 사생활 간섭과 행동 통제가 없는지 예의주시하여야 하고, 문제발생 시 공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운동부는 운동환경을 공정하게 운영하는지 체크해봅시다

정책

- ◆ 선수의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 운동부 내 사생활 침해, 갑질 및 차별 근절과 공정한 조직 운영을 위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였다.

실행

- ◆ 합숙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 ◆ 운동부 내 인권침해와 불공정 관행 예방을 위한 대상별 실행지침을 배포하고 있다.
- ◆ 지도자 채용 시 '갑질'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주지시킨다.

교육

- ◆ 선수에게 운동부 내 갑질 및 불공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주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 ◆ 지도자나 운동부 운영자에게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운동부 문화와 공정한 근로관계 조성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대처

- ◆ 사생활 침해, 불공정과 비리 사항 발생 시 대처와 해결을 위해 참고할 상담, 조사, 구제 관련 매뉴얼을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 ◆ 실업팀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을 사용하며,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

모니터링 및 평가

- ◆ 운동부 내 갑질문화 근절과 불공정 관행 예방 정책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평가할 기준을 갖추고 있다.
- ◆ 갑질문화 근절과 불공정 관행 예방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고 있다.

행정당국도 다음과 같은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선수의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정책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선수의 사생활 보호와 각종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 내에서 갑질 및 불공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한 경우 그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한다.
- ◆ 여성, 장애인, 실업선수 등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 ◆ 개별 운동부나 행정당국에 운동부 내 갑질 및 선수에 대한 불공정 처우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처리가 지연 또는 무마되거나, 관대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감독한다.
- ◆ 운동부 내 불공정 관행과 비리 관련 사건 발생 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한다.
- ◆ 각종 체육시설 및 제도에 대한 장애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한다.

6

스포츠 인권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향하여

대한민국은 세계 주요 경기를 밝히는 스포츠 강국이 되었지만, 선수들은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승리 지상주의의 그늘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훈련장과 경기장은 선수들을 스포츠 기계로 만들며 가혹한 전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기록과 승부만 존재하는 스포츠는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결국 모두를 패자로 만듭니다. 한두 명의 스포츠 스타를 만들기 위해 대다수 선수들이 희생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의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고통받지 않으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향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엘리트 스포츠주의는 메달 수와 경기 성적에 집착하게 하여 체육계의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반인권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부상을 무릅쓰고 투혼을 불사르는 선수의 모습은 때로는 인간승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이고 가혹한 훈련 속에서 악전고투하는 위기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스포츠의 기본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가혹한 훈련에 매달리고 일반 국민은 승리와 메달에 환호하는 구경꾼 역할의 스포츠 문화에서 벗어나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나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가 되어야 합니다.

스포츠는 인간의 건강 유지와 신체의 균형적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여가의 한 활동이며, 사회통합과 결속을 다지고, 이념과 국가의 벽을 넘어 다른 공동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연령·장애 등을 떠나 누구나 신체활동에 참여하며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스포츠 조직은 예산과 조직을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에 균형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전문 선수들의 운동 환경 역시 인격과 사생활, 건강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운동 방식과 민주적인 운동부 운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학생선수들의 경우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 아동·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을 돕고,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성인 선수들의 경우 상업적으로만 가치를 평가하고 이용하는 환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와 스포츠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피해 지원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여성 선수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활동이 단절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와 행정가의 여성 비율을 늘리고, 스포츠 지도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스포츠 현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도 차별 없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첫째,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적 기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스포츠가 전문 체육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행복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을 모아야 합니다. 스포츠계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폭력과 성폭력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관이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현장의 보호체계가 일관되고 엄격하게 작동되기 위해서 정부 유관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 보호 의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를 통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셋째,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전담기구 설치

◆ 필요성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한 여러 기관과 단체가 부실·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스포츠계 내부의 영향력이 행사되면서 피해자들의 불신과 신고 저하를 가져옴

◆ 실행방향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상담과 조사업무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담당함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② 폭력·성폭력 징계혐의자의 엄격한 처리

◆ 필요성

폭력·성폭력 사건이 각 지역체육단체에서 처리됨으로써 징계규정의 임의적용, 과도한 정상참작, 온정주의, 사건의 축소 및 은폐, 비전문적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실행방향**

-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지역관할 없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는 통합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며 그 위원은 관계 전문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
- 온정주의적 처분을 막기 위해 폭력·성폭력 사건의 징계양형 결정시 정상참작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징계양형 규정을 세분화
-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폭력·성폭력 지도자와 선수의 징계절차와 징계 양형 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

③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의 폭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 **필요성**

폭력·성폭력 사건에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리조치와 가해자 직무정지, 신고내용 비밀보호 등을 규정화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실행방향**

폭력·성폭력 등의 사건에서 가해자 조사,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의 적용을 강화하며 이를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함

④ **폭력·성폭력 징계자의 엄격한 사후 관리**

◆ **필요성**

현재 스포츠계 시스템은 폭력·성폭력 등 징계전력이 있는 지도자 및 선수가 현장에 쉽게 복귀할 수 있는 환경임

◆ **실행방향**

- 학교 및 직장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의 채용, 평가, 재임용, 계약해지의 기준에 폭력·성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
- 각 기관·단체별로 발생한 폭력·성폭력 관련 징계정보 공유
- 학교 및 직장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가 폭력·성폭력으로 징계받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실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체육단체 역시 징계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소속 학교와 직장운동부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과 단체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

⑤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가의 스포츠계 선수·지도자 보호정책 활성화**

◆ **필요성**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계의 반복적 폭력·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추진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실행방향**

- 체육 관계법령에 '선수·지도자 보호' 관련사항을 명확히 제시
- 학교, 직장, 체육단체의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한 감사
- 문체부를 중심으로 체육계 구성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수와 지도자 보호를 위한 통일적인 정책 추진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첫째,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 필요성

현재 학생선수 인권보호 체계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나 학습권 침해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음

◆ 실행방향

학생선수는 훈련방식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학교 밖 체육시설에서 훈련하는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야 함

둘째, 학생선수의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필요성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이 선수의 진학과 지도자의 평가와 관련되는 현실 속에서 경기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과 수업결손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실행방향

- 학생선수의 건강한 생존과 발달을 보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선발과 지도자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함
-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학생선수가 혹사당하지 않도록 각 기관이 협력하여 훈련과 휴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관리해야 함

- 대회 참가 및 훈련을 위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의무교육인 초등과 중학교에서는 조기 폐지)하고, 학습권 보호 관련 법류 및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함

셋째, 학생선수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야 합니다.

◆ 필요성

학생선수는 소수의 동료선수와 지도자에게 생활의 대부분을 의존하며 다양한 유형의 폭력과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스스로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처하기는 어려움

◆ 실행방향

- 각 기관은 학생선수가 폐쇄적인 환경에 고립되어 피해를 겪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피해에 침묵하지 않도록 보다 개방적인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해야 함
- 가해자 유형별 대응방안과 신고방법을 교육하는 등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함
- 분산되어 있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업무 담당주체 간 협업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첫째, 선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 및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성인선수들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장 시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 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수와 지도자의 행동규범과 훈련장 및 숙소생활의 운영기준을 마련
- 인권의식 및 젠더 감수성 확립 교육, 인권침해 중재 등 인권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
- 심리·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며,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

둘째, 여성선수에 대한 성차별 해소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여성선수들이 겪는 성차별과 성폭력을 해소하고, 생리·임신·출산 등과 관련된 여성건강권을 보장하며, 장기적으로 각 종목에서의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선수들의 근로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해야 합니다.

직장운동부 선수들은 계약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불공정한 계약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여 사용하며, 계약 당사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합숙소 인권침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강제적 합숙소는 폐지되어야 함. 선수 체력관리와 편의도모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선수들의 합숙소 생활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합숙소 내 선수들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또한, 2인 1실 이하 운영, 지도자 합숙공간 분리 등 합숙소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권이 보장된 스포츠 그리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향하여

2019년 빙상과 유도 종목에서 연이어 폭로된 스포츠폭력 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곧바로 범정부적 차원의 각종 대책과 대응책이 발표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방대한 현장조사와 인권교육, 사회적 캠페인이 펼쳐졌지만, 그 모든 활동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2020년 6월, 폭력과 차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선수는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스포츠인권은 축구부 합숙소 화재로 초등학교생들이 사망했던 2003년도의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지난 이십 년 동안 우리 사회 인권은 비록 최선은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개선되어 왔고, 어떤 부분은 눈부신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왜 유독 체육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 책에서 소개되는 여러 사례와 통계는 이러한 물음이 단지 기우에 불과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의 폐쇄성이나 선수들의 폭력의 내면화 정도를 감안할 때, 실제적인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포츠 분야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포츠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즐기는 스포츠가 되지 않는 한 스포츠계의 폐쇄성과 독점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스포츠 인권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인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는 일부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닌, 진정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현장은 여전히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자’는 수준의 1차적 인권침해 예방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과연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좋아서, 재미있어서, 그리고 재능이 있어서 꿈을 갖고 시작했던 스포츠가 즐거움 대신 고통이 되는 폭력적 구조를 당장 개선해야 합니다. 성별, 나이, 장애, 신체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즐겁게 스포츠를 즐기며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스포츠 인권의 큰 지향을 향해 느리더라도 굳건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 책에 담긴 선수들의 용기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헛되지 않도록 많이 읽어주시고 널리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99-01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0F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788-0 03330